

궁물떡볶이

궁금해? 물어봐!

내 마음과 하루를 남기는 8주 질문일기장 & 필사노트



궁금한 걸 물어봐 → 궁물

떠오른 질문도, 마음에 새긴 한 줄도 차곡차곡.

학교 _____

학년 / 반 ____ 학년 ____ 반

이 공책의 주인 _____

기록한 기간 202__년 __월 __일 ~ __월 __일 (8주의 여정)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생각이 자라고 마음이 닿는 곳

스스로 묻고 함께 배우는 세종 어린이의 질문일기

매일 아침, 나에게 작은 물음표 하나를 선물해 보세요.

어제와 다른 오늘을 발견하고,
마음속에서 보글보글 솟아나는 호기심을 가만히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한 뼘 더 훌쩍 자라난 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공책은 정답을 채우는 시험지가 아니라,
나만의 고유한 생각과 소중한 마음을 차곡차곡 담아내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나의 보물창고입니다.

매일의 일기, 토요일의 새로운 관찰, 일요일의 따뜻한 필사,
그리고 주차별 생각 충전소를 거치며
8주 동안 저마다의 아름다운 빛깔로 빛나기를 온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강 미 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궁물떡볶이

궁금해? 물어봐!

내 마음과 하루를 남기는 8주 질문일기장 & 필사노트



이 공책을 기록하는 어린이

학 교 : _____

학년 / 반 : _____ 학년 _____ 반

이 름 : _____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궁물떡볶이》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이 공책은 나의 생각과 마음을 소중히 가꾸는 특별한 질문일기장입니다.



‘궁물’이란 무슨 뜻일까요?

떡볶이 국물이 보글보글 끓듯, 우리 마음속 호기심도 보글보글 솟아나요.
‘궁금한 걸 물어봐!’를 줄여서 다정하게 ‘궁물’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국물처럼 따뜻하고 깊은 맛이 나는 나만의 질문을 찾아가 보세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알찬 주 7일 구성

- 월~금: 아침편지, 신문, 동화, 마음표현, 명작 동시로 생각 열기
- 토요일: 일상과 사물을 새롭게 바라보는 관찰과 발상의 시간
- 일요일: 마음에 울림을 주는 명문장을 따라 쓰는 ‘궁물 필사노트’
- 주차별 중간: 2페이지 특집 아티클 《궁물 생각 충전소》 총 8편 수록

《궁물떡볶이》를 맛있게 즐기는 4가지 방법

1. 정답이 없어요: 생각이 머무는 곳에 자유롭게 쓰세요.
2. 그림도 좋아요: 낙서, 만화, 마인드맵도 멋진 기록이에요.
3. 생각이 머뭇거릴 땐: 책을 180도 돌려 아래쪽 힌트를 보세요.
4. 나만의 속도로: 바쁜 날은 단무지 한 줄만 써도 충분해요.

8주 56일 동안 나를 만나는 시간

하루하루 쌓인 질문과 필사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의 보물책이 됩니다.
준비되었나요? 이제 첫 번째 장을 힘차게 넘겨 보아요!

질문의 세 가지 맛 알아보기

궁물 질문에는 난이도가 아닌, 서로 다른 세 가지 맛이 있어요.



순한맛 · 콧코 찾기 (사실적 질문)

눈에 보이는 사실을 콧코 집어 확인하는 질문이에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단서를 찾아보아요.



보통맛 · 곰곰 짐작 (추론적 질문)

드러나지 않은 뜻과 까닭을 곰곰이 상상해 보는 질문이에요.
'왜 그랬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숨은 이야기를 짐작해요.



매운맛 · 내 생각 톡톡 (감상적 질문)

'나라면 어땠을까?' 내 생각과 마음의 양념을 톡톡 뿌려요.
자신만의 기준으로 느낌을 나누고 생각을 보태는 질문이에요.

8주간의 질문 여행 지도 (Roadmap)

1주차	나의 마음	내 안의 다양한 감정을 들여다보는 시간 특집: 마음에도 날씨가 살고 있을까?
2주차	함께 사는 우리	친구, 가족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시간 특집: 진짜 친구는 어떤 모습일까?
3주차	익숙한 하루	늘 보던 일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간 특집: 실수는 생각의 멋진 비료!
4주차	미래의 나	나만의 빛깔과 리듬으로 성장하는 시간 특집: 나만의 속도로 걷는 아이
5주차	자연과 생명	작은 생명들과 계절의 숨소리를 느끼는 시간 특집: 나무는 왜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을까?
6주차	배움과 호기심	새로운 지식과 '왜?' 질문을 탐험하는 시간 특집: '왜?'라는 질문이 세상을 바꾼 비밀
7주차	사회와 세상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시간 특집: 두려움이라는 친구와 손잡는 법
8주차	나와 세상의 연결	8주간의 열매를 맺고 더 넓은 세상으로 특집: 내가 던진 작은 돌맹이의 동심원

8주 질문 여행을 시작하는 나의 약속

나만의 속도로 하루에 하나씩, 정성껏 생각을 채워갈 것을 약속해요.

1. 매일 아침과 저녁, 내 마음에 귀 기울이기

정답을 맞히려고 애쓰기보다 내 안의 진짜 솔직한 감정과 생각을 만나요.

2. 토요일의 새로운 눈, 일요일의 바른 글씨

토요일엔 일상의 사물을 새롭게 관찰하고, 일요일엔 좋은 글을 또박또박 필사해요.

3. 틀릴까 봐 두려워하지 않고 질문 던지기

세상에 엉뚱하거나 쓸모없는 질문은 없어요. 나의 물음표는 모두 소중해요.

4. 중간중간 생각 충전소에서 지혜 넓히기

주차별 특집 이야기를 읽으며 나를 돌아보고 친구의 마음을 헤아려요.

나의 질문 다짐 서약

202__년 __월 __일 도전자 (나의 이름) : _____ (서명)

“나는 매일매일 나만의 질문으로 멋지게 자라날 것을 약속합니다!”

필사노트와 일기, 이렇게 쓰면 쉬워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즐겁게 기록하는 팁을 알려줄게요.

일요일 궁물 필사노트 쓰는 법

1. 문장을 소리 내어 천천히 두 번 읽어 보세요.
2. 마음에 와닿는 낱말에 동그라미를 치거나 밑줄을 그어 보세요.
3. 원고지 정서 칸에 한 글자씩 또박또박 바른 글씨로 따라 쓰세요.
4. 문장 아래 '문장 속 궁물' 질문에 내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왼쪽 면 나의 질문일기 쓰는 법

1. 오른쪽 콘텐츠(뉴스, 동화, 동시, 관찰, 필사)에서 힌트를 얻어도 좋아요.
2. 오늘 나에게 일어났던 사소한 일이나 내 솔직한 감정을 써도 좋아요.
3. 글이 막힐 땐 그림을 그리거나 마인드맵으로 생각을 펼쳐 보세요.
4. 마지막 3줄 '오늘의 마음 단무지'에 오늘 하루의 기분을 스케치나 그림으로 남겨요.

준비 완료! 이제 첫 장을 펼쳐보세요

질문은 마법의 열쇠예요. 묻기 시작할 때 세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1주차 첫 월요일 아침으로 힘차게 출발해 볼까요?

나의 질문일기

날짜: 202__년 __월 __일 (월요일) | 날씨: [맑음 · 흐림 · 비 · 눈 · 바람]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오늘의 마음 단무지



오늘 내 마음은 어떤 맛이었을까?

말이나 그림, 색칠도 좋아. 자유롭게 표현해 봐.

선생님의 궁물 아침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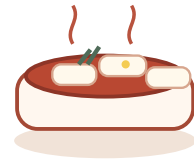
월요일 아침, 이불 속에서

안녕, 애들아! 주말 잘 보내고 교실에서 다시 만나니 정말 반가워.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5분만 더 자고 싶다...' 하며 이불을 꼭 쥐었던 친구 있니? 사실 선생님도 어릴 때 월요일 아침이면 늘 그랬단다.

몸은 학교에 왔는데 마음은 아직 방에 남아 있는 것 같을 땐, 오늘 하루를 한 꺼번에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신발주머니를 제자리에 두고, 창밖을 한 번 보고, 가만히 숨을 고르면 마음도 금방 널 따라올 거야.

오늘 아침 네 마음은 어땠니? 솔직한 네 마음을 선생님에게 살짝 들려줄래?



오늘의 공물

오늘 아침, 내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솔직한 생각을 써 보.

여기서 떠오른 생각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 돌보기 힌트 (책을 180도 돌려 보세요)

『배움과 내 성장 독후록』이 어떤 주제를 기록 좋게 시작하기 위해 나에게 해 주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보통과』만. 공문 전체가 '몸'은 교실에 왔는데 '마음'이 밖에 남아 있는 기록은 어떤 기록일까요?
『순환한』만. 폭력 찾기. 모든 아픈 곳을 펴를 때 내 내면 속에게 가장 먼저 그 생각은?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말이나 그림, 색칠도 좋아. 자유롭게 표현해 보.

신문에서 만난 궁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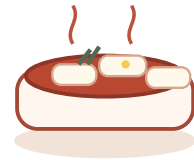
마음 이야기를 나눌 곳을 늘려요

교육부는 2025년 12월, 학생의 마음건강을 돕는 계획을 발표했다. 학생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다.

학생들이 마음을 돌보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도 늘리고, 학생의 어려움을 살펴볼 조사도 마련하기로 했다. 학교와 학교 밖 기관이 함께 학생을 돕는 내용도 담겼다.

이 기사는 발표된 계획을 소개한다. 모든 학교에 상담인력이 이미 배치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자료 출처: 교육부]



오늘의 궁물

이 소식을 읽으며 떠오른 마음이나 내 경험을 남겨 봐.

여기서 떠오른 생각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 돌보기 힌트 (책을 180도 돌려 보세요)

어려운 일을 겪고도 표출 못하곤 하는 친구들, 힘든 일을 겪고도 [걱정, 슬픔, 화남]을
 표현하지 못하는 친구들, [걱정, 슬픔, 화남]을 표현하지 못하는 친구들, [걱정, 슬픔, 화남]을
 표현하지 못하는 친구들, [걱정, 슬픔, 화남]을 표현하지 못하는 친구들, [걱정, 슬픔, 화남]을

나의 질문일기

날짜: 202__년 __월 __일 (수요일) | 날씨: [맑음 · 흐림 · 비 · 눈 · 바람]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오늘의 마음 단무지



오늘 내 마음은 어떤 맛이었을까?

말이나 그림, 색칠도 좋아. 자유롭게 표현해 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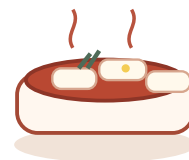
이야기 한 편

지우개 괴물과 빨간 색연필

미술 시간, 도화지에 고양이를 그리던 민호는 마음에 들지 않아 지우개로 벽 벽 문질렀다. 그러다 그만 도화지가 찢어지고 말았다.

‘에이, 망쳤어!’ 민호가 울상을 짓자, 짝꿍 서아가 빨간 색연필을 건네며 속삭였다. “찢어진 곳에 하트 반창고를 그려봐. 고양이가 다쳐서 치료받은 것처럼!”

민호는 눈을 깜빡이다가 찢어진 틈 위에 빨간 하트를 예쁘게 그렸다.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다정한 반창고 고양이가 완성되었다.



오늘의 공물

마음에 들지 않던 실수가 오히려 멋진 결과로 바뀐 적이 있니?

여기서 떠오른 생각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 돌보기 힌트 (책을 180도 돌려 보세요)

이제부터는 물리적으로도 나의 극한을 깨닫고 싶을 때 [나를 놀라게 하는 것들]을
 네가 생각하는 나의 물리적으로도 깨닫고 싶을 때 [나를 놀라게 하는 것들]을
 이극한을 깨닫고 싶을 때 [나를 놀라게 하는 것들]을 깨닫고 싶을 때 [나를 놀라게 하는 것들]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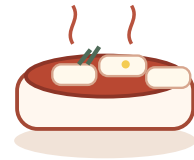
말이나 그림, 색칠도 좋아. 자유롭게 표현해 보.

마음 가는 대로
마음 세탁기가 있다면?

옷에 묻은 얼룩을 빨래하듯, 우리 마음속의 찌꺼기나 속상함도 깨끗하게 빨아주는 '마음 세탁기'가 있다면 어떨까?

질투는 은은한 비누 거품으로 행구고, 짜증은 따뜻한 물로 씻어내고, 슬픔은 햇볕에 뽕송뽕송 말리는 거야.

세탁이 끝난 빨래통을 열었을 때, 너의 마음에서는 어떤 기분 좋은 향기가 날까?



오늘의 공물

오늘 마음 세탁기에 넣고 깨끗이 빨아버리고 싶은 감정 하나를 적어 보.

여기서 떠오른 생각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 돌보기 힌트 (책을 180도 돌려 보세요)

이디리교고 공(을 동공의 同公)놈 공조 공공 이공이 하 특근 [이제 해본 : 이대국]
 이대동 이대비 이대표 하 이다 이디로 틀리든 이이거야 명하 [이도 문문 : 이술서]
 이디리교 고공 극조 이르려 이어근표 끈물지용 은그 뽕은하 하 [놀날 이여 하 : 이공배]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말이나 그림, 색칠도 좋아. 자유롭게 표현해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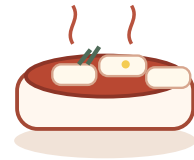
동시에서 만난 궁물

호수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꼭 가리지만

보고픈 마음
호수만 하니
눈 감을 밖에.

— 정지용, 「호수」



오늘의 궁물

눈을 감아도 자꾸만 떠오르는 사람이나 생각이 있니?

여기서 떠오른 생각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 돌보기 힌트 (책을 180도 돌려 보세요)

이제부터는 책을 180도 돌려 보세요. 책을 180도 돌려 보세요.
이제부터는 책을 180도 돌려 보세요. 책을 180도 돌려 보세요.
이제부터는 책을 180도 돌려 보세요. 책을 180도 돌려 보세요.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말이나 그림, 색칠도 좋아. 자유롭게 표현해 보.

토요일의 궁물 · 관찰과 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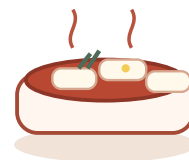
멈추어 선 방 안의 풍경

토요일 오후, 평일에는 바빠서 지나쳤던 내 방 구석구석을 가만히 둘러보았어.

책상 위에 비스듬히 놓인 연필 한 자루,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창틀의 먼지, 의자 뒤에 걸쳐 놓은 외투 소매까지. 가만히 바라보니 사물들도 저마다 숨을 고르고 있는 것 같아.

늘 보던 익숙한 풍경도 걸음을 멈추고 30초만 오래 바라보면 전혀 새로운 비밀을 속삭여 준단다.

오늘 내 눈길이 가장 오래 머문 사물이나 풍경은 무엇이었니?



토요일의 궁물 · 관찰에서 발상으로

오늘 내 주변에서 새롭게 발견한 작은 것 하나를 적어 봐.

여기서 떠오른 생각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 돌보기 힌트 (책을 180도 돌려 보세요)

이런저런 궁물 · 관찰을 하다가
이런저런 생각 · 발상을
이런저런 궁물 · 관찰을 하다가
이런저런 생각 · 발상을
이런저런 궁물 · 관찰을 하다가
이런저런 생각 · 발상을

오른쪽 필사 문장에서 이어져도, 오늘 하루 이야기부터 시작해도 좋아.

말이나 그림, 색칠도 좋아. 자유롭게 표현해 보.

일요일의 궁물 필사노트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오직 마음으로 보아야
정확하게 볼 수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야.

—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 중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자주 마음을 빼앗겨요. 하지만 우정, 사랑, 배려처럼 소중한 것들은 마음으로만 느낄 수 있습니다. 천천히 글씨를 쓰며 내 마음속 보이지 않는 소중한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바른 글씨 정서 원고지 · 토박토박 바르게 쓰기

총 64칸 (16자 × 4줄)

문장 속 궁물 · 마음에 묻다

이 문장을 마음에 품고, 나에게 건네고 싶은 질문이나 생각을 써 봐.

여기서 떠오른 생각은 왼쪽 질문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 돌보기 힌트 (책을 180도 돌려 보세요)

어려운 글씨를 쓰기 전에
간단한 글씨를 써서
글씨를 쓰는 법을 익히세요.
글씨를 쓰는 법을 익히세요.
글씨를 쓰는 법을 익히세요.

궁물 생각 충전소 · 1주차 특집

마음에도 날씨가 살고 있을까?

흐리고 비 오는 날의 내 마음을 가만히 안아주는 법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을 때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고 빗방울이 후둑후둑 떨어지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왠지 모르게 몸이 찌뿌둥하고, 기분도 덩달아 가라앉을 때가 있지요.

그런데 신기한 건, 우리 마음속에도 하늘처럼 매일매일 다른 날씨가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날은 눈이 부시도록 맑은 햇살이 쏟아져서 가만히 있어도 콧노래가 흥얼거려지고, 또 어떤 날은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거나 천둥 번개가 치듯 화가 머리끝까지 나기도 합니다.

어른들은 종종 '늘 밝고 씩씩해야 착한 아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세상 어디에도 365일 내내 햇빛만 쨍쨍 내리쬐는 하늘은 없어요. 만약 일 년 내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다면 땅은 메마르고 사막이 되어 나무도 꽃도 자라날 수 없을 테니까요.

마음의 비도 마찬가지예요. 슬프거나 속상할 때 흘리는 눈물은 우리 마음의 메마른 땅을 적셔 주고, 영킨 감정의 먼지를 깨끗하게 씻어 주는 고마운 소나기랍니다.



생각의 날개를 펴고 오른쪽 이야기로 이어가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내 마음에 비추어 보세요.

생각 이어가기 & 마음 비추기

마음속에 먹구름이 몰려올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구름을 억지로 밀어내려고 애쓰지 않는 거예요. '왜 난 이런 기분이 들지?', '빨리 기분 좋아져야 해!' 하고 다 그치면 먹구름은 오히려 더 짙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럴 땐 창가에 서서 빗소리를 가만히 듣듯, 내 마음의 날씨를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세요. '아, 오늘 내 마음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구나.', '지금 내 안에 찬 바람이 뽕뽕 불고 있네.' 하고 알아차려 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폭풍우는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비구름이 제 갈 길을 다 가고 나면 반드시 푸른 하늘과 영롱한 무지개가 얼굴을 내밀 듯이, 우리 마음의 어둠도 반드시 지나가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 하늘에는 어떤 날씨가 머물고 있나요?

내 마음에 띄우는 질문 풍선

이야기를 읽고 난 뒤, 내 마음에 떠오른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 봐요.

1. 이번 일주일 동안 내 마음 하늘에 가장 자주 뜬 날씨는 무엇이었나요? (해, 구름, 비, 무지개 등)
2. 마음에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릴 때, 나를 따뜻하게 덮어 주는 '나만의 마음 우산'은 무엇인가요?
3. 오늘 하루, 흐린 날씨를 보내고 있는 친구나 가족에게 건네고 싶은 따뜻한 한마디는?

나의 질문일기

날짜: 202__년 __월 __일 (월요일) | 날씨: [맑음 · 흐림 · 비 · 눈 · 바람]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오늘의 마음 단무지



오늘 내 마음은 어떤 맛이었을까?

말이나 그림, 색칠도 좋아. 자유롭게 표현해 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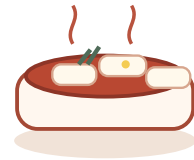
선생님의 궁물 아침편지

먼저 건네는 '안녕'의 힘

얘들아, 오늘 아침 복도에서 마주친 친구에게 먼저 웃으며 손 흔들어 보았니?
 '저 친구가 내 인사를 안 받아주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머뭇거리려질 때가 있지. 하지만 먼저 건네는 다정한 인사는 굳어 있던 공기를 따스하게 녹이는 마법의 열쇠란다.

인사는 '나는 너를 보고 있어, 네가 와서 참 좋아'라는 소리 없는 포옹이야. 오늘 하루, 마주치는 세 명의 친구에게 먼저 눈을 맞추고 '안녕!' 하고 말을 건네 보는 건 어떨까?

그 작은 한마디가 우리 교실을 훨씬 따뜻한 봄날로 만들어 줄 거야.



오늘의 궁물

오늘 내가 먼저 다정하게 인사를 건넨 사람은 누구였니?

여기서 떠오른 생각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 돌보기 힌트 (책을 180도 돌려 보세요)

이웃은 나의 궁물인 나의 이웃인 이웃인 이웃인 이웃인 이웃인 이웃인 이웃인 이웃인 이웃인 이웃인
 이웃인 이웃인 이웃인 이웃인 이웃인 이웃인 이웃인 이웃인 이웃인 이웃인 이웃인 이웃인 이웃인 이웃인 이웃인
 이웃인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말이나 그림, 색칠도 좋아. 자유롭게 표현해 보.

신문에서 만난 궁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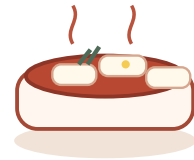
어린이 놀이터를 더 안전하고 신나게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놀이시설의 안전 기준을 높이고, 휠체어를 탄 친구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터를 확대하기로 했다.

턱을 없애고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네와 미끄럼틀을 만들어 장애가 있는 어린이와 없는 어린이가 차별 없이 친구가 되도록 돕는 계획이다.

누구나 다치지 않고 신나게 웃을 수 있는 놀이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소중한 권리다.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오늘의 궁물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놀이터는 어떤 모습일까?

여기서 떠오른 생각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 돌보기 힌트 (책을 180도 돌려 보세요)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놀이시설의 안전 기준을 높이고, 휠체어를 탄 친구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터를 확대하기로 했다.

턱을 없애고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네와 미끄럼틀을 만들어 장애가 있는 어린이와 없는 어린이가 차별 없이 친구가 되도록 돕는 계획이다.

누구나 다치지 않고 신나게 웃을 수 있는 놀이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소중한 권리다.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말이나 그림, 색칠도 좋아. 자유롭게 표현해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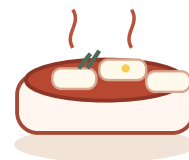
이야기 한 편

급식실의 비밀 암호

급식실에서 유독 편식이 심한 동우는 시금치나물이 나오자 한숨을 푹 쉬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지호가 눈을 찡긐하며 식판의 메추리알 장조림 하나를 가리켰다. “동우야, 시금치 한 숟가락 먹으면 내가 메추리알 하나랑 비밀 트레이드 해줄게!”

동우는 눈을 질끈 감고 시금치를 꿀꺽 삼켰다. 지호는 약속대로 달콤 짭조름한 메추리알을 동우 식판에 쓱 넣어주었다. 둘은 킁킁 웃으며 식판을 깨끗이 비웠다.



오늘의 궁물

친구의 작은 배려나 유쾌한 응원 덕분에 힘든 일을 해낸 적이 있니?

여기서 떠오른 생각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 돌보기 힌트 (책을 180도 돌려 보세요)

이제부터는 급식실에서도 편식이 심한 동우는 시금치나물이 나오자 한숨을 푹 쉬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지호가 눈을 찡긐하며 식판의 메추리알 장조림 하나를 가리켰다.
“동우야, 시금치 한 숟가락 먹으면 내가 메추리알 하나랑 비밀 트레이드 해줄게!”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말이나 그림, 색칠도 좋아. 자유롭게 표현해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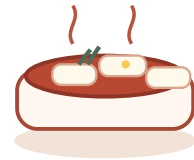
마음 가는 대로

친구가 속상해 보일 때

단짝 친구가 평소와 다르게 어깨를 움츠리고 말도 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어.

'무슨 일 있어?' 하고 캐묻자니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냥 모른 척하자니 마음이 쓰이지.

말없이 곁에 앉아 좋아하는 사탕 하나를 쥐여주거나, 가만히 등을 토닥여 주는 것만으로도 친구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고 큰 위로를 받는단다.



오늘의 공물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나만의 다정한 위로 방법은?

여기서 떠오른 생각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 돌보기 힌트 (책을 180도 돌려 보세요)

「배운 것, 내 생각, 독물, 내가 움직였을 때 가장 힘이 되었던 친구의 행동이나 말은 무엇이었을까?」「보통의 문, 문은 전혀」 말로 다 다쳐 묻지 않고 곁에 있어 주는 것이 위로가 되는 까닭은?」「순한 것, 폭력 찾기」 친구가 속상할 수 있는 모습(표정, 행동)은?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말이나 그림, 색칠도 좋아. 자유롭게 표현해 보.

동시에서 만난 궁물 감자꽃

자주 꽃 핀 건

자주 감자

파보나 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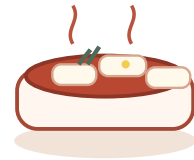
자주 감자

하얀 꽃 핀 건

하얀 감자

파보나 마나

하얀 감자



오늘의 궁물

— 권태응, 「감자꽃」

겉모습과 속마음이 한결같이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에 대해 생각해 봐.

여기서 떠오른 생각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 돌보기 힌트 (책을 180도 돌려 보세요)

이제부터 이 책을 열어 궁물처럼 되려 한다면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눈앞에 · 눈앞에]
 이대로 있는 그대로 있는 궁물 같은 것들을 [이제 있는 그대로 있는 · 있는 그대로]
 이대로 있는 그대로 있는 궁물 같은 것들을 [이제 있는 그대로 있는 · 있는 그대로]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말이나 그림, 색칠도 좋아. 자유롭게 표현해 보.

토요일의 궁물 · 관찰과 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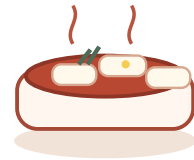
친구의 필통과 내 필통

주말에 책상을 정리하다가 지난주에 짝공과 책상을 나란히 붙이고 공부하던 모습이 떠올랐어.

내 필통에는 손때 묻은 지우개와 몽당연필이 가득한데, 짝공의 필통에는 가지런한 형광펜과 귀여운 캐릭터 스티커가 붙어 있었지.

필통 하나만 들여다보아도 친구의 성격, 좋아하는 색깔, 물건을 아끼는 습관이 고스란히 보여.

우리는 서로 다른 물건과 취향을 가지고 있지만, 교실이라는 큰 도화지에서 어울려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단다.



토요일의 궁물 · 관찰에서 발상으로

친구의 소지품이나 습관 중 나와 달라서 흥미로웠던 점을 적어 봐.

여기서 떠오른 생각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 돌보기 힌트 (책을 180도 돌려 보세요)

이제부터는 궁물 관찰을 통해 친구의 습관이나 취향을 알아보는 것보다, 친구의 소지품이나 습관 중 나와 달라서 흥미로웠던 점을 적어 보는 것부터 시작해볼까? 친구의 소지품이나 습관 중 나와 달라서 흥미로웠던 점을 적어 봐.

오른쪽 필사 문장에서 이어져도, 오늘 하루 이야기부터 시작해도 좋아.

말이나 그림, 색칠도 좋아. 자유롭게 표현해 보.

일요일의 궁물 필사노트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친구가 될 거야.

—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 중에서

'길들인다'는 것은 서로에게 정성과 시간을 쏟는다는 뜻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된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지요. 친구를 떠올리며 정성껏 써 보세요.

바른 글씨 정서 원고지 · 토박토박 바르게 쓰기

총 64칸 (16자 × 4줄)

문장 속 궁물 · 마음에 묻다



이 문장을 마음에 품고, 나에게 건네고 싶은 질문이나 생각을 써 봐.

여기서 떠오른 생각은 왼쪽 질문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 돌보기 힌트 (책을 180도 돌려 보세요)

어제 읽은 책의 주인공이 되어 공짜로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싶어요.
어제 읽은 책의 주인공이 되어 공짜로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싶어요.
어제 읽은 책의 주인공이 되어 공짜로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싶어요.

궁물 생각 충전소 · 2주차 특집

진짜 친구는 어떤 모습일까?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의 모난 구석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사이

매일 점심시간마다 팔짱을 끼고 다니고, 비밀 이야기를 나누고, 재미있는 게임을 함께하는 친구가 있나요? 친구와 함께 있으면 혼자일 때보다 웃음소리가 두 배로 커지고 학교 오는 길이 기다려지지요.

하지만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매일 마음이 꼭 맞을 수는 없어요. 사소한 장난 때문에 빠치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놀이를 친구가 싫어해서 토라지기도 하며, 때로는 다른 친구와 더 친하게 지내는 모습에 질투가 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린 진짜 친구가 아닌가 봐' 하고 실망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지만 진짜 친구란 모든 생각과 취향이 100% 똑같은 쌍둥이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생각과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그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한 번 더 헤아려 주는 마음에서 진짜 우정이 싹트는 것입니다.



생각의 날개를 펴고 오른쪽 이야기로 이어가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내 마음에 비추어 보세요.

생각 이어가기 & 마음 비추기

동화 『어린 왕자』에 나오는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네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한 것은 네가 그 꽃을 위해 쏟은 시간 때문이야'라고 말해 주었어요.

진짜 친구가 되는 비결도 똑같아요. 비싼 선물을 주거나 억지로 환심을 사려고 애쓰는 대신, 친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고, 슬플 때 곁을 지켜 주며 함께 보낸 따뜻한 시간들이 모여 둘도 없는 단짝을 만듭니다.

내 약점을 숨기지 않고 털어놓을 수 있고, 친구의 서툰 실수도 '괜찮아!' 하며 웃어넘겨 줄 수 있는 사이. 여러분 곁에는 그런 든든한 친구가 있나요? 또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 주고 있나요?

내 마음에 띄우는 질문 풍선

이야기를 읽고 난 뒤, 내 마음에 떠오른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 봐요.

1. 내가 친구에게 가장 고마웠거나 감동받았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2. 친구와 사소한 일로 다투었을 때, 화해하기 위해 먼저 낼 수 있는 작은 용기는 무엇일까요?
3. 내가 먼저 다른 친구에게 '진짜 좋은 친구'가 되어 주기 위해 오늘 실천하고 싶은 일은?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말이나 그림, 색칠도 좋아. 자유롭게 표현해 보.

선생님의 궁물 아침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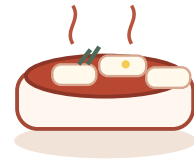
오늘 하루의 작은 보물 찾기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길을 걸어 학교에 오다 보면, 하루하루가 그저 똑같이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하지만 돋보기를 들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상에 똑같은 날은 단 하루도 없단다. 어제는 보이지 않던 보도블록 틈의 작은 풀꽃이 피어났을 수도 있고, 늘 무뎠던 문구점 아저씨가 다정하게 웃어주셨을 수도 있어.

익숙함 속에 숨어 있는 반짝이는 다름을 찾아내는 사람을 우리는 '호기심 탐험가'라고 부른다.

오늘 너의 등갯길에서 만난 가장 신기한 작은 보물은 무엇이었니?



오늘의 공물

매일 걷던 길이나 교실에서 오늘 새롭게 발견한 작은 차이점을 적어 보.

여기서 떠오른 생각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 돌보기 힌트 (책을 180도 돌려 보세요)

[illegible]

날짜: 202__년 ____월 ____일 (화요일) | 날씨: [맑음 · 흐림 · 비 · 눈 · 바람]

말이나 그림, 색칠도 좋아. 자유롭게 표현해 보.

신문에서 만난 궁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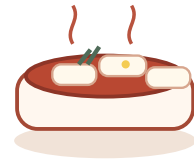
버려진 펫병의 놀라운 새 변신

환경부는 투명 페트병을 깨끗하게 모아 옷, 가방, 신발을 만드는 고품질 재활용 순환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가 마시고 분리배출한 생수병이 잘게 부서지고 녹아 가느다란 실이 되면
 , 멋진 운동복이나 튼튼한 책가방으로 다시 태어난다.

쓰모를 다했다고 버려지는 쓰레기도 새로운 시선과 기술을 만나면 지구를 지키는 소중한 자원이 된다.

[자료 출처: 환경부]



오늘의 공물

내 주변에서 쓸모를 다했다고 생각했던 물건의 새로운 쓰임새를 상상해 보.
여기서 떠오른 생각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 돌보기 힌트 (책을 180도 돌려 보세요)

[illegible]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말이나 그림, 색칠도 좋아. 자유롭게 표현해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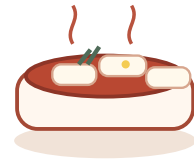
이야기 한 편

달리기 꿀씨와 바람의 응원

체육 시간 50m 달리기 시합에서 준우는 꼴찌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풀이 죽어 벤치에 털썩 주저앉아 땅바닥만 내려다보았다.

그때 살랑살랑 불어온 시원한 봄바람이 땀에 젖은 준우의 이마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준우야, 1등은 못 했지만 너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뛰었잖아!’
바람이 귤가에 귤속말을 건네는 것 같았다. 준우는 다시 가슴을 펴고 일어섰다.



오늘의 공물

결과보다 끝까지 최선을 다한 과정이 더 자랑스러웠던 경험이 있니?

여기서 떠오른 생각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 돌보기 힌트 (책을 180도 돌려 보세요)

배운 것 내 삶에 녹여내서
 남에게 나누고 싶을 때
 그 때에야 비로소
 배운 것이 내 것이 된 거야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말이나 그림, 색칠도 좋아. 자유롭게 표현해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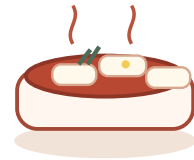
마음 가는 대로

비 오는 날의 웅덩이 거울

비가 내린 뒤 운동장 구석에 동그란 물웅덩이가 생겼어.

진흙탕인 줄 알고 지나치려다 가만히 들여다보니, 웅덩이 속에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이 통째로 풍당 빠져 있었지.

발밑의 물웅덩이조차도 고개를 숙여 바라보면 높은 하늘을 품고 있는 거울이 된단다.



오늘의 궁물

주변의 흔하고 사소한 풍경에서 발견한 뜻밖의 아름다움을 적어 봐.

여기서 떠오른 생각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 돌보기 힌트 (책을 180도 돌려 보세요)

이제까지의 글은 글쓴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 이루어진 글입니다. 글이란 글쓴이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 이루어진 글입니다. 글이란 글쓴이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 이루어진 글입니다.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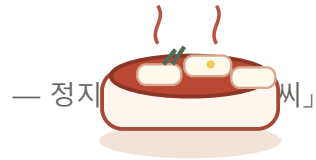
말이나 그림, 색칠도 좋아. 자유롭게 표현해 보.

동시에서 만난 궁물 해바라기 씨

해바라기 씨를 심자
흙을 덮고 물을 주자

조그만 알 속에
커다란 노란 꽃이
숨어 있네

가만가만 숨죽이고
여름을 기다리네.



오늘의 궁물

지금은 아주 작지만 내 안에 숨어 있는 커다란 가능성의 씨앗은?
여기서 떠오른 생각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 돌보기 힌트 (책을 180도 돌려 보세요)

지렁이도 토끼도 노랑이도 극락도 노랑이도 [지렁이 노랑 · 극락도]
치렁이도 [치렁이 노랑 · 치렁이] [치렁이 노랑 · 치렁이]
지렁이도 [지렁이 노랑 · 지렁이] [지렁이 노랑 · 지렁이]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말이나 그림, 색칠도 좋아. 자유롭게 표현해 보.

토요일의 궁물 · 관찰과 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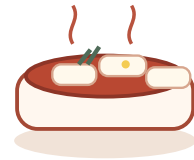
골목길 신호등의 붉은 눈과 초록 눈

토요일 오후, 학원 가는 길목의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등을 물끄러미 올려다 보았어.

빨간불이 켜지면 땀 뻘뻘 달리던 거대한 자동차들이 마법에 걸린 듯 일제히 멈추어 서고, 초록불이 켜지면 조심스레 발을 댄 아이들이 씩씩하게 길을 건너지.

작은 전등 두 개가 번갈아 켜지는 것뿐인데, 세상의 모든 사람과 차가 약속을 지키며 질서를 만들고 있어.

우리가 매일 스쳐 지나가는 신호등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다정한 골목의 파수꾼이란단.



토요일의 궁물 · 관찰에서 발상으로

길거리의 신호등, 표지판, 안전띠처럼 우리를 지켜주는 고마운 약속들을 관찰해 보. 여기서 떠오른 생각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 돌보기 힌트 (책을 180도 돌려 보세요)

이정하와윤윤 이준호 극하윤하 정민하 정하 이준호 이준호 [이준호 눈물 · 눈물공]
이준호 이준호 이준호 이준호 이준호 이준호 이준호 이준호 [이준호 눈물 · 눈물공]
이준호 이준호 이준호 이준호 이준호 이준호 이준호 이준호 [이준호 눈물 · 눈물공]

날짜: 202__년 ____월 ____일 (일요일) | 날씨: [맑음 · 흐림 · 비 · 눈 · 바람]

오른쪽 필사 문장에서 이어져도, 오늘 하루 이야기부터 시작해도 좋아.

말이나 그림, 색칠도 좋아. 자유롭게 표현해 보.

일요일의 궁물 필사노트

한 알의 모래 속에서 세상을 보고

한 알의 모래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한 송이 들꽃 속에서
천국을 보아라.

— 윌리엄 블레이크, 「순수의 전조」 중에서

세상의 거대한 비밀은 먼 곳에 있지 않아요. 발밑의 작은 모래알 하나, 흔한 들꽃 한 송이 속에도 온 우주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일상의 사소한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써 보세요.

바른 글씨 정서 원고지 · 도박도박 바르게 쓰기

총 64칸 (16자 × 4줄)

문장 속 궁물 · 마음에 묻다

이 문장을 마음에 품고, 나에게 건네고 싶은 질문이나 생각을 써 봐.

여기서 떠오른 생각은 왼쪽 질문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 돌보기 힌트 (책을 180도 돌려 보세요)

이러한것과 통통한 이빨을 웃음으로 이웃과 더불어 금강산의 [이웃] 놀음 · 놀음과
이러한것과 통통한 이빨을 웃음으로 금강산의 통통한 이빨을 웃음으로 [이웃] 문문 · 놀음과
이러한것과 통통한 이빨을 웃음으로 금강산의 통통한 이빨을 웃음으로 [이웃] 놀음 · 놀음과

궁물 생각 충전소 · 3주차 특집

실수는 생각의 멋진 비료!

넘어지고 부딪히며 자라나는 나의 마음 성장 이야기

수학 문제를 풀다가 사소한 계산 실수로 오답을 적었을 때, 줄넘기를 하다가 줄에 발이 걸려 넘어졌을 때, 우리는 종종 얼굴이 빨개지고 속이 상하곤 합니다.

'난 왜 항상 이 모양일까?', '남들은 한 번에 척척 잘하는데 왜 나만 서툴까?' 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씨앗이 땅 위로 힘차게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어둡고 축축한 흙 속에서 부딪히고 껍질을 깨뜨리는 고통의 시간을 거쳐야 해요.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 거름과 비료가 꼭 필요하듯이, 우리가 겪는 실수와 서툰 경험들은 모두 여러분의 생각을 더 깊고 단단하게 자라나게 해 주는 최고의 비료랍니다.



생각의 날개를 펴고 오른쪽 이야기로 이어가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내 마음에 비추어 보세요.

생각 이어가기 & 마음 비추기

백열전구를 발명한 에디슨은 전구를 완성하기까지 무려 수천 번이 넘는 실패를 겪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헛수고를 계속하느냐'고 물었을 때, 에디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전구가 켜지지 않는 수천 가지 방법을 새롭게 발견했을 뿐입니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를 배운 사람은 없어요. 무릎이 까지고 핸들을 비틀거리며 넘어져 본 사람만이 중심을 잡는 법을 비로소 몸으로 깨닫게 되지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한 실수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시도했다는 자랑스러운 훈장이랍니다!

내 마음에 띄우는 질문 풍선

이야기를 읽고 난 뒤, 내 마음에 떠오른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 봐요.

1. 최근에 내가 했던 가장 아쉬웠던 실수나 실패는 무엇이었나요?
2. 그 실수를 통해 새롭게 깨닫거나 다음번에 더 잘하게 된 점은 무엇인가요?
3. 실수해서 주눅 들어 있는 나 자신이나 친구에게 건네고 싶은 '비료 같은 한마디'는?

나의 질문일기

날짜: 202__년 __월 __일 (월요일) | 날씨: [맑음 · 흐림 · 비 · 눈 · 바람]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오늘의 마음 단무지



오늘 내 마음은 어떤 맛이었을까?

말이나 그림, 색칠도 좋아. 자유롭게 표현해 봐.

선생님의 궁물 아침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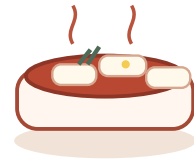
10년 뒤의 내가 보낸 편지

애들아, 10년 뒤인 2036년의 너 자신을 상상해 본 적 있니? 그때가 되면 너희는 어엿한 어른이 되어 사회 속에서 멋지게 날개를 펴고 있겠지.

만약 10년 뒤 멋진 모습으로 자라난 네가 지금 초등학교 교실에 앉아 있는
너에게 타임머신 편지를 보낸다면 뭐라고 적혀 있을까?

‘지금 힘들어도 괜찮아, 너는 아주 잘 자라고 있어!’라고 따뜻하게 안아줄 것
같지 않니?

오늘 하루, 미래의 내가 뿌듯해할 수 있는 멋진 생각 하나를 심어 보자.



오늘의 공물

10년 뒤의 나에게 전하고 싶은 솔직한 질문이나 다짐을 써 보.

여기서 떠오른 생각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 돌보기 힌트 (책을 180도 돌려 보세요)

【배경음】 내성각 독물? 멋진 미래를 위해 내내가 오늘부터 매일 씹어가고 싶은 음식관은?

【보통음】 물론 전자 미량이나 내가 지금 보아 주는 것을 최상해줄까?

【조화음】 꼭꼭 찾아가! 10년 뒤 너는 뭐를 하고 싶어 하고 있어? 꼭꼭 찾아가!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말이나 그림, 색칠도 좋아. 자유롭게 표현해 보.

신문에서 만난 궁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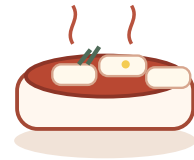
우주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한민국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차세대 심우주 탐사 로드맵을 발표했다.

달 착륙선을 보내고 화성을 탐사하며, 인공위성을 통해 기후 위기를 관측하는 첨단 우주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호기심을 키운 어린이들이 미래에 우주를 연구하는 당당한 주역으로 성장하게 된다.

[자료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늘의 궁물

우주선에 몸을 싣고 미지의 행성으로 떠난다면 어떤 비밀을 밝히고 싶니?

여기서 떠오른 생각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 돌보기 힌트 (책을 180도 돌려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차세대 심우주 탐사 로드맵, 달 착륙선, 화성 탐사선, 인공위성, 기후 위기, 첨단 우주 프로젝트, 호기심, 어린이, 미래, 우주 연구, 주역, 성장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말이나 그림, 색칠도 좋아. 자유롭게 표현해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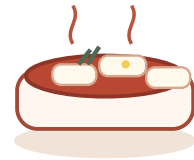
이야기 한 편

미래에서 온 나의 타임캡슐

주말에 방 청소를 하던 수빈이는 2년 전 2학년 때 썼던 빼돌빼돌한 일기장을 발견했다. '오늘은 구구단 3단을 외웠다. 너무 어렵다'라고 적혀 있었다.

지금은 구구단을 눈감고도 외우는데, 그때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벽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수빈이는 슬며시 웃음이 났다. '지금 내가 고민하는 것들도 2년 뒤에 보면 이렇게 귀엽겠지?' 마음속에 든든한 용기가 차올랐다.



오늘의 궁물

예전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척척 해내게 된 나의 성장 경험이 있니?

여기서 떠오른 생각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 돌보기 힌트 (책을 180도 돌려 보세요)

이제부터는 내가 할 일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
 예전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척척 해내게 된 나의 성장 경험이 있니?
 여기서 떠오른 생각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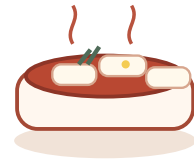
말이나 그림, 색칠도 좋아. 자유롭게 표현해 보.

마음 가는 대로
내가 만든 새로운 직업

세상에는 수많은 직업이 있지만, 아직 이름조차 붙지 않은 새로운 일들도 무궁무진해.

외로운 인형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인형 심리상담사', 밤하늘의 구름 모양을 정리하는 '구름 정원사', 친구들의 화해를 돕는 '웃음 번역가'.

너의 상상력과 따뜻한 마음이 만나면 세상에 오직 너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직업이 탄생한다.



오늘의 공물

내가 세상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새롭게 발명한 나만의 직업을 소개해 봐.
여기서 떠오른 생각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 돌보기 힌트 (책을 180도 돌려 보세요)

[illegible]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말이나 그림, 색칠도 좋아. 자유롭게 표현해 보.

동시에서 만난 궁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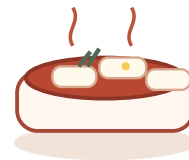
별똥

별똥 떨어진 곳
마음에 두었다

다음 날 가보려
벼르다 벼르다

달 밝은 밤
찾으러 갔더니

어여쁜 별똥은
안 보이고



오늘의 궁물

부싯돌 하나가
반짝이는 꿈을 찾아가는 길에서 만난 뜻밖의 소중한 발견은?
빛나고 있네.

여가서 떠오른 생각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 정지용, 「별똥」

생각 돌보기 힌트 (책을 180도 돌려 보세요)

이정희 [이정희 궁물] 궁물 [이정희 궁물] 궁물 [이정희 궁물] 궁물 [이정희 궁물]
이정희 [이정희 궁물] 궁물 [이정희 궁물] 궁물 [이정희 궁물] 궁물 [이정희 궁물]
궁물 [이정희 궁물] 궁물 [이정희 궁물] 궁물 [이정희 궁물] 궁물 [이정희 궁물]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말이나 그림, 색칠도 좋아. 자유롭게 표현해 보.

토요일의 궁물 · 관찰과 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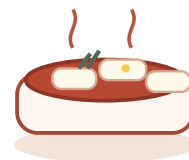
자라고 있는 내 손톱과 발톱

토요일 오후, 손톱깎이로 하얗게 자라난 손톱을 깎다가 가만히 손가락 끝을 들여다보았어.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TV를 보고 친구와 떠드는 동안에도 내 몸은 쉬지 않고 세포를 나누며 자라나고 있었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하지만, 시간은 내 손끝과 발끝에서 정직하게 앞으로 걸어가고 있어.

몸이 자라는 것만큼, 이번 일주일 동안 내 생각과 마음의 키도 조금 자라났을까?



토요일의 궁물 · 관찰에서 발상으로

내 몸이나 습관 중에서 내가 매일 조금씩 자라나고 있음을 느끼게 해 주는 변화는?

여기서 떠오른 생각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 돌보기 힌트 (책을 180도 돌려 보세요)

이것이 궁물 · 관찰과 발상
 이 글은 내 몸과 습관 중에서 내가 매일 조금씩 자라나고 있음을 느끼게 해 주는 변화는?
 여기서 떠오른 생각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오른쪽 필사 문장에서 이어져도, 오늘 하루 이야기부터 시작해도 좋아.

말이나 그림, 색칠도 좋아. 자유롭게 표현해 보.

일요일의 궁물 필사노트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 윤동주, 「서시(序詩)」 중에서

시인 윤동주는 작은 바람에도 자신을 돌아보며 부끄러움 없는 길을 걷고자 다짐했어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다짐을 마음에 새겨
보세요.

바른 글씨 정서 원고지 · 토박토박 바르게 쓰기

총 64칸 (16자 × 4줄)

문장 속 궁물 · 마음에 묻다



이 문장을 마음에 품고, 나에게 건네고 싶은 질문이나 생각을 써 봐.

여기서 떠오른 생각은 왼쪽 질문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 돌보기 힌트 (책을 180도 돌려 보세요)

이제부터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글로 써 보자. 글은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글로 써 보자. 글은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글로 써 보자. 글은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다.

궁물 생각 충전소 · 4주차 특집

나만의 속도로 걷는 아이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보폭으로 세상을 탐험하는 법

체육 대회 100m 달리기 시합을 할 때,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는 친구에게 모든 사람의 환호와 박수가 쏟아집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들고 '난 왜 저렇게 빠르지 못할까?' 부러워질 때가 있지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친구는 한 번만 읽어도 어려운 내용을 척척 이해하고 문제를 번개처럼 풀어내는데, 나는 두 번 세 번 읽어도 고개가 갸웃거려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숲속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봄의 길목에서 개나리와 벚꽃은 눈부시게 활짝 피어나지만, 무더운 여름이 되어서야 은은한 향기를 피우는 수련도 있고, 서늘한 가을 찬 바람이 불어야만 고고한 자태를 뽐내는 국화도 있습니다.

일찍 피는 꽃이 아름답다고 해서, 늦게 피는 꽃이 덜 아름다운 것은 결코 아니에요. 모든 꽃은 저마다 활짝 피어나는 '자기만의 계절'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생각의 날개를 펴고 오른쪽 이야기로 이어가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내 마음에 비추어 보세요.

생각 이어가기 & 마음 비추기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거북이가 끝까지 갈 수 있었던 비결은, 토끼를 이기려고 애쓰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한 걸음'에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인생은 다른 사람과 똑같은 속도로 달려야 하는 트랙 경주가 아니라, 각자 가고 싶은 곳을 찾아가는 즐거운 숲속 여행과 같아요.

조금 느리게 걸으면 남들이 빠르게 지나치느라 보지 못했던 예쁜 조약돌도 줍고, 풀잎에 맺힌 영롱한 이슬방울도 찬찬히 들여다볼 수 있답니다.

남의 시계에 여러분의 걸음을 맞추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속도로 멋지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띄우는 질문 풍선

이야기를 읽고 난 뒤, 내 마음에 떠오른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 봐요.

1. 남들과 비교하느라 조금해지거나 속상했던 경험이 있나요?
2. 조금 서툴고 느리지만, 내가 가장 즐겁고 끈기 있게 몰입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3. '나만의 속도'로 뚜벅뚜벅 걷고 있는 나 자신에게 건네고 싶은 따뜻한 응원 한마디는?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말이나 그림, 색칠도 좋아. 자유롭게 표현해 보.

선생님의 공물 아침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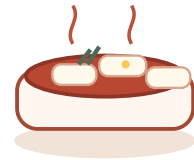
보도블록 틈새의 작은 초록빛

오늘 아침 학교 오는 길에 땅바닥을 보며 걷다가 신기한 걸 발견했어. 딱딱한 보도블록 틈새에 아주 작은 풀꽃 하나가 쑥 고개를 내밀고 있더구나.

흙도 별로 없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길인데도, 초록빛 잎을 활짝 펴고 햇볕을 쬔고 있었어.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조용하지만 힘차게 살아가는 작은 생명들이 참 많아. 바쁘게 걷다 보면 못 보고 지나치기 쉽지만, 가만히 허리를 숙여 보면 저마다의 소중한 삶이 보인단다.

오늘 너의 눈에 들어온 우리 곁의 작은 자연은 무엇이었니?



오늘의 공물

등굣길이나 교실 창밖에서 마주친 작은 생명에게 눈길을 건네 봐.

여기서 떠오른 생각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 돌보기 힌트 (책을 180도 돌려 보세요)

이공욱군 '숨겨' 룬 12호와 13호를 바꿔 11호를 룬으로 [12호 눈물 · 13호 꿈]
 이예은영 12호와 13호를 바꿔 11호를 룬으로 [12호 눈물 · 13호 꿈]
 이예은영 12호와 13호를 바꿔 11호를 룬으로 [12호 눈물 · 13호 꿈]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말이나 그림, 색칠도 좋아. 자유롭게 표현해 보.

신문에서 만난 궁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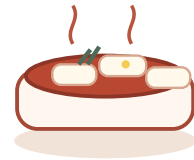
도시 속에 생명이 숨 쉬는 숲을 넓혀요

산림청과 환경부는 도시의 열기를 식히고 야생 동식물이 오갈 수 있도록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스팔트와 빌딩으로 단절된 녹지를 연결하여 새와 곤충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 바람길 숲을 가꾸는 계획이다.

사람과 자연이 한 공간에서 어우러져 숨 쉴 때 우리의 삶터도 더 건강하고 푸르러진다.

[자료 출처: 산림청·환경부]



오늘의 궁물

우리 동네에 새들과 나비가 쉬어 갈 수 있는 작은 숲이 생긴다면?

여기서 떠오른 생각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 돌보기 힌트 (책을 180도 돌려 보세요)

이런저런 궁물로 극한 일로까지 몸을 만들며 이쪽저쪽 [이제 놀고 · 놀고]
 이궁물로 복귀를 이룬 극한일로 이리 통령을 이리한 [이제 문문 · 놀고]
 이궁물 극한 수를 이리한 이리한 통령을 이리한 이리한 이리한 [이제 놀고 · 놀고]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말이나 그림, 색칠도 좋아. 자유롭게 표현해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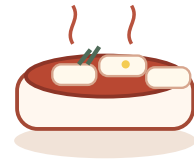
이야기 한 편

베란다에 찾아온 까치 손님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 베란다 난간에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았다.

깃털을 부르르 떨며 물방울을 털어내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창문 안쪽의 나를 뵈다보았다.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까치와 눈이 마주쳤다. 녀석도 나를 관찰하고 있었을까? 비가 그치자 까치는 깹깹 울며 힘차게 날아갔다.



오늘의 궁물

동물이나 곤충과 눈이 마주쳐 교감했던 신기한 순간이 있니?

여기서 떠오른 생각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 돌보기 힌트 (책을 180도 돌려 보세요)

이제부터는 궁물궁물 궁물궁물 궁물궁물 궁물궁물 궁물궁물 궁물궁물 궁물궁물
 궁물궁물 궁물궁물 궁물궁물 궁물궁물 궁물궁물 궁물궁물 궁물궁물 궁물궁물
 궁물궁물 궁물궁물 궁물궁물 궁물궁물 궁물궁물 궁물궁물 궁물궁물 궁물궁물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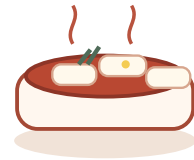
말이나 그림, 색칠도 좋아. 자유롭게 표현해 보.

마음 가는 대로 바람의 소리와 냄새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이야기를 싣고 우리 곁을 지나가.

나뭇잎을 흔드는 사각사각 소리, 비 냄새를 머금은 흙냄새, 계절이 바뀌는 싹
싸름한 풀 향기.

가만히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면 자연이 들려주는 비밀 편지를 읽을 수 있어.



오늘의 궁물

오늘 바람이 전해 준 계절의 냄새나 소리를 묘사해 봐.

여기서 떠오른 생각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 돌보기 힌트 (책을 180도 돌려 보세요)

이 글에서 궁물을 골라 왼쪽 일기에 글로 써 보세요. (180도 돌려 보세요)
 이 글에서 궁물을 골라 왼쪽 일기에 글로 써 보세요. (180도 돌려 보세요)
 이 글에서 궁물을 골라 왼쪽 일기에 글로 써 보세요. (180도 돌려 보세요)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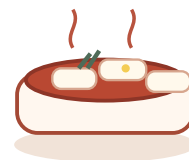
말이나 그림, 색칠도 좋아. 자유롭게 표현해 보.

동시에서 만난 궁물 반딧불

가자 가자 가자
숲으로 가자
달 조각을 주으러
숲으로 가자

그믐밤 반딧불은
부서진 달 조각

— 윤동주, 「반딧불」



오늘의 궁물

자연 속에서 보았던 가장 신비롭고 반짝이던 생명의 순간은?

여기서 떠오른 생각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 돌보기 힌트 (책을 180도 돌려 보세요)

이동주, 「반딧불」, 『시집』, 문학사상사, 2015년
이동주, 「반딧불」, 『시집』, 문학사상사, 2015년
이동주, 「반딧불」, 『시집』, 문학사상사, 2015년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말이나 그림, 색칠도 좋아. 자유롭게 표현해 보.

토요일의 궁물 · 관찰과 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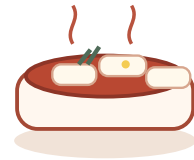
길가에 핀 민들레와 작은 흙 알갱이

토요일 아침, 아파트 화단 앞을 지나다가 바위틈에 노랗게 핀 민들레 한 송이를 보았어.

흙이 한 줌도 채 되지 않는 척박한 돌 틈인데도, 잎사귀는 싱싱하고 꽃잎은 해님을 닮아 환하게 피어 있었지.

자세히 다가가 코를 대어보니 은은한 흙냄새가 났어.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무리 작은 풀꽃이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커다란 우주를 품고 있단다.

오늘 네 발걸음을 멈추게 한 자연의 작은 기적은 무엇이었니?



토요일의 궁물 · 관찰에서 발상으로

길가나 화단에서 우연히 마주친 작은 생명을 자세히 관찰하고 적어 보.

여기서 떠오른 생각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 돌보기 힌트 (책을 180도 돌려 보세요)

【배운 것】 내 새 각 독물 / 고후 / 결 / 의 / 작 / 은 / 자 / 이 / 려 / 말 / 려 / 고 / 다 / 나 / 만 / 나 / 에 / 게 / 구 / 무 / 려 / 말 / 려 / 까 /
【모든 것】 꿈 / 온 / 전 / 자 / 각 / 들 / 으 / 서 / 싸 / 을 / 티 / 문 / 민 / 들 / 에 / 는 / 어 / 면 / 용 / 기 / 를 / 넣 / 으 / 까 /?
【순한 것】 폭 / 폭 / 찾 / 기 / 모 / 록 / 의 / 름 / 으 / 서 / 마 / 주 / 전 / 물 / 꽃 / 이 / 나 / 공 / 공 / 의 / 생 / 기 / 세 / 는 / 어 / 떠 / 나 / 려 / 까 /?

오른쪽 필사 문장에서 이어져도, 오늘 하루 이야기부터 시작해도 좋아.

말이나 그림, 색칠도 좋아. 자유롭게 표현해 보.

일요일의 궁물 필사노트

자연은 결코 서두르지 않아

자연은 서두르는 법이 없다.
그러나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다 이룬다.

— 라오쯔(노자) / 헨리 데이비드 소로, 『월든』 중에서

우리는 매일 서둘러 숙제하고 앞서가려고 애쓸 때가 많아요. 하지만 숲의 나무와 꽃들을 보세요. 서두르지 않지만 결국 아름다운 숲을 이루지요. 조금함을 내려놓고 써 보세요.

바른 글씨 정서 원고지 · 토박토박 바르게 쓰기

총 64칸 (16자 × 4줄)

문장 속 궁물 · 마음에 묻다



이 문장을 마음에 품고, 나에게 건네고 싶은 질문이나 생각을 써 봐.

여기서 떠오른 생각은 왼쪽 질문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 돌보기 힌트 (책을 180도 돌려 보세요)

이제까지 본 궁물과 다른 궁물도 찾아볼까요? (책의 뒷부분을 보세요)
 이 글에서 본 궁물과 다른 궁물도 찾아볼까요? (책의 뒷부분을 보세요)
 이 글에서 본 궁물과 다른 궁물도 찾아볼까요? (책의 뒷부분을 보세요)

궁물 생각 충전소 · 5주차 특집

나무는 왜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을까?

양상한 겨울을 견뎌야 푸른 봄날을 맞이하는 자연의 비밀

가을이 깊어지면 무성하던 나뭇잎들이 울긋불긋 물들고, 겨울이 오면 바람에 낙엽이 후두둑 떨어져 나무는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됩니다.

어떤 친구들은 나뭇잎을 모두 잃어버린 겨울나무를 보며 '나무가 쓸쓸해 보인다'거나 '벌거벗어서 춥겠다'고 걱정하곤 해요.

하지만 나무에게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일은 슬픈 일이 아니에요. 매서운 겨울바람과 얼어붙는 추위를 견뎌내기 위해, 스스로 욕심을 비우고 가장 소중한 생명의 뿌리를 지키려는 나무만의 지혜로운 선택이랍니다.

잎을 다 떨군 나무는 겨울 동안 깊은 잠을 자며 땅속 깊은 곳에서 다가올 봄을 준비합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나이트를 단단하게 새기며 눈 밑에서 봄맞이 힘을 비축하고 있는 것이지요.



생각의 날개를 펴고 오른쪽 이야기로 이어가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내 마음에 비추어 보세요.

생각 이어가기 & 마음 비추기

우리 삶에도 겨울나무처럼 모든 게 멈춘 것 같고 외로운 날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시험을 망쳤거나, 친구와 다투거나, 노력했는데도 잘 풀리지 않아 풀이 죽어 있을 때 말이에요.

그럴 때 '왜 난 이것밖에 안 되지?' 하고 자책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더 단단한 새 잎을 틔우기 위해 잠시 겨울을 지나고 있는 것뿐이니까요.

겨울의 추위를 정직하게 견뎌낸 나무만이 봄날에 가장 찬란하고 맑은 초록 잎을 피워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보이지 않는 마음의 뿌리를 더 튼튼하게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내 마음에 띄우는 질문 풍선

이야기를 읽고 난 뒤, 내 마음에 떠오른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 봐요.

1. 요즘 내 마음의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어디쯤 지나고 있나요?
2. 힘든 순간을 겪고 있는 나 자신이나 친구에게 '겨울나무'처럼 건네주고 싶은 응원은 무엇인가요?
3. 실패하거나 멈춰 섰던 경험이 나중에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던 기억이 있나요?

나의 질문일기

날짜: 202__년 __월 __일 (월요일) | 날씨: [맑음 · 흐림 · 비 · 눈 · 바람]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오늘의 마음 단무지



오늘 내 마음은 어떤 맛이었을까?

말이나 그림, 색칠도 좋아. 자유롭게 표현해 봐.

선생님의 궁물 아침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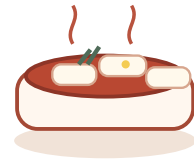
“선생님, 질문 있어요!”

수업 시간에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 질문 있어요!' 하고 묻는 친구를 볼 때마다 선생님은 속으로 손뼉을 친다.

질문한다는 건 '내가 지금 공부에 마음을 쏟고 있어요'라는 멋진 신호거든. 엉뚱한 질문도 좋고, 사소한 궁금증도 참 좋아. 세상의 모든 대단한 과학과 발명도 아주 작은 물음표에서 시작되었으니까.

틀릴까 봐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 모르는 걸 궁금해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를 쑥쑥 자라게 하는 가장 큰 마법이란다.

오늘 네 머릿속을 맴도는 가장 재미있는 물음표는 무엇이니?



오늘의 궁물

오늘 꼭 알아내고 싶거나 머릿속에 떠오른 '왜 그럴까?' 질문은?

여기서 떠오른 생각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 돌보기 힌트 (책을 180도 돌려 보세요)

이궁물 궁물궁물 궁물궁물 궁물궁물 궁물궁물 궁물궁물 궁물궁물 궁물궁물 궁물궁물
 궁물궁물 궁물궁물 궁물궁물 궁물궁물 궁물궁물 궁물궁물 궁물궁물 궁물궁물 궁물궁물
 궁물궁물 궁물궁물 궁물궁물 궁물궁물 궁물궁물 궁물궁물 궁물궁물 궁물궁물 궁물궁물

나의 질문일기

날짜: 202__년 __월 __일 (화요일) | 날씨: [맑음 · 흐림 · 비 · 눈 · 바람]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오늘의 마음 단무지



오늘 내 마음은 어떤 맛이였을까?

말이나 그림, 색칠도 좋아. 자유롭게 표현해 봐.

신문에서 만난 궁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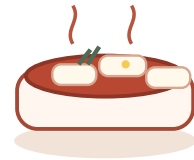
청소년 우주탐사 체험, 과학의 꿈을 키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천문연구원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우주와 천문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망원경으로 밤하늘의 행성을 관측하고, 인공위성과 우주망원경이 보내온 데이터

별을 바라보며 품은 질문 하나가 미래의 첨단 과학기술을 이끄는 커다란 씨앗이 된다.

[자료 출처: 과기정통부·천문연]



오늘의 공물

우주망원경으로 우주의 끝을 볼 수 있다면 무엇을 확인하고 싶니?

여기서 떠오른 생각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 돌보기 힌트 (책을 180도 돌려 보세요)

【배경 및 내재 가치】 배후의 수많은 중대인의 이름을 붙여주고 싶은
【포용 및 공공적 가치】 주장을 공복하는 것은 지구에서의 우리 삶에 어떤 도움이 될까?
【확한 · 복복 찾기】 청소년들이 공공 체험을 통해 직접 할 수 있는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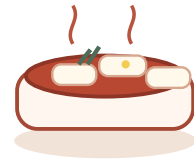
말이나 그림, 색칠도 좋아. 자유롭게 표현해 보.

이야기 한 편
실패 왕 대회

과학 시간에 종이비행기 멀리 날리기 실험을 했다. 민우의 비행기는 던지자마자 바닥에 곤두박질쳤다.

아이들이 웃었지만 선생님은 민우에게 다가오셨다. “날개 각도를 조금 바꾸면 공기 흐름이 달라질 거야. 실패한 덕분에 새로운 법칙을 발견했네!”

민우는 날개를 살짝 접어 다시 던졌다. 비행기는 교실 천장을 가르며 가장 멀리 날아갔다.



오늘의 공물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소중한 배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니?

여기서 떠오른 생각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 돌보기 힌트 (책을 180도 돌려 보세요)

[illegible]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말이나 그림, 색칠도 좋아. 자유롭게 표현해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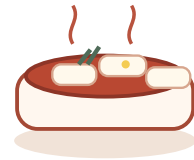
마음 가는 대로

거꾸로 생각하는 세상

물건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위로 솟구친다면? 낮에 자고 밤에 학교를 간다면?

익숙한 규칙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엉뚱하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샘솟아.

상상력에는 정답도 오답도 없어. 오늘은 세상을 거꾸로 뒤집어 보는 상상 실험을 해 보자.



오늘의 궁물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의 규칙 하나를 반대로 바꾼다면?

여기서 떠오른 생각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 돌보기 힌트 (책을 180도 돌려 보세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다. 모든 것은 이 법칙을 따라 움직인다. 이 법칙을 깨뜨리면 세상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 법칙을 깨뜨리면 세상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 법칙을 깨뜨리면 세상은 완전히 달라진다.

나의 질문일기

날짜: 202__년 __월 __일 (금요일) | 날씨: [맑음 · 흐림 · 비 · 눈 · 바람]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오늘의 마음 단무지



오늘 내 마음은 어떤 맛이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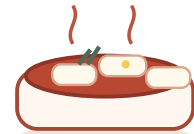
말이나 그림, 색칠도 좋아. 자유롭게 표현해 봐.

동시에서 만난 궁물 오줌싸개 지도

빨랫줄에 걸린 요가
펼럭펼럭
하소연을 하네

밤새 꿈속에서
세계여행 다니다가
지도를 그렸나 봐

오늘은 어디로 갈까
별나라로 갈까



— 윤동주, 「호남의 새 시도」

오늘의 공물

실수나 부끄러운 일도 유쾌한 호기심과 상상으로 바뀔 적이 있니?

여기서 떠오른 생각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 돌보기 힌트 (책을 180도 돌려 보세요)

[illegible]

나의 질문일기

날짜: 202__년 __월 __일 (토요일) | 날씨: [맑음 · 흐림 · 비 · 눈 · 바람]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오늘의 마음 단무지



오늘 내 마음은 어떤 맛이였을까?

말이나 그림, 색칠도 좋아. 자유롭게 표현해 봐.

토요일의 궁물 · 관찰과 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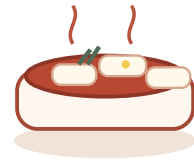
책장 맨 구석에 꽃힌 낡은 책 한 권

토요일 오후, 방 정리 도중에 책장 구석에 꽃혀 먼지가 살포시 앉은 낡은 책 한 권을 꺼내 보았어.

표지 모서리가 닳고 종이는 누렇게 바랬지만, 책장을 넘기자 오래된 종이 냄새와 함께 내가 어릴 때 그었던 밑줄과 낙서가 보였지.

이 책을 읽던 날의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시간의 먼지가 묻은 물건은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이어주는 타임머신이 된단다.

오늘 네 주변에서 발견한 시간의 흔적이 묻은 오래된 물건은 무엇이니?



토요일의 궁물 · 관찰에서 발상으로

집이나 도서관에서 발견한 오래된 물건이나 책을 관찰하고 그 안에 담긴 시간을 상상해 봐. 여기서 떠오른 생각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 돌보기 힌트 (책을 180도 돌려 보세요)

이 책은 나의 소중한 기억을 담고 있는 소중한 물건입니다. 책을 180도 돌려 보세요. 책을 180도 돌려 보면, 책을 읽던 날의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시간의 먼지가 묻은 물건은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이어주는 타임머신이 된단다.

오른쪽 필사 문장에서 이어져도, 오늘 하루 이야기부터 시작해도 좋아.

말이나 그림, 색칠도 좋아. 자유롭게 표현해 보.

일요일의 궁물 필사노트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
호기심은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

—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은 특별한 재능보다 '열정적인 호기심'이 세상을 바꾼다고 말했어요. 세상의 정답에 머물지 않고 '왜?'를 묻는 마음이 새로운 내일을 엽니다. 나만의 질문을 품고 써 보세요.

바른 글씨 정서 원고지 · 또박또박 바르게 쓰기

총 64칸 (16자 × 4줄)

[illegible]

문장 속 궁물 · 마음에 묻다

이 문장을 마음에 품고, 나에게 건네고 싶은 질문이나 생각을 써 보.

여기서 떠오른 생각은 왼쪽 질문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 돌보기 힌트 (책을 180도 돌려 보세요)

[illegible]

궁물 생각 충전소 · 6주차 특집

‘왜?’라는 질문이 세상을 바꾼 비밀

완벽한 정답보다 소중한 나만의 엉뚱한 물음표

나무에서 사과가 툭 떨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과가 참 맛있겠다'고 생각하거나 그냥 지나쳤어요. 하지만 아이작 뉴턴은 '사과는 왜 워낙 옆으로 가지 않고 오직 땅으로만 떨어질까?'라는 엉뚱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 하나가 지구와 우주를 관통하는 거대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밝혀내는 출발점이 되었지요.

학교 시험에서는 정답을 빨리 맞히는 아이가 칭찬을 받곤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나온 위대한 발명과 발견, 그리고 감동적인 예술 작품들은 모두 '정답'이 아니라 '남들이 하지 않았던 질문'에서 태어났어요.

질문은 닫힌 문을 여는 열쇠와 같아요. 답만 외우는 사람은 이미 만들어진 길만 따라가지만, 질문을 던지는 아이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숲에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생각의 날개를 펴고 오른쪽 이야기로 이어가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내 마음에 비추어 보세요.

생각 이어가기 & 마음 비추기

'선생님, 하늘은 왜 파래요?', '물고기도 잠을 잘 때 눈을 감나요?', '시간은 왜 앞으로만 흐를까요?'

어떤 질문은 어른들도 당황하게 만들고, 때로는 엉뚱하다는 핀잔을 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기죽지 마세요! 세상에 쓸모없는 질문이란 단 하나도 없으니까요.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내 머릿속에서 호기심의 불꽃이 탁 켜졌다는 뜻이에요. 좋은 질문 하나는 백 개의 정답보다 더 오랫동안 여러분의 생각을 자라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엉뚱하고 빛나는 물음표가 숨어 있나요?

내 마음에 띄우는 질문 풍선

이야기를 읽고 난 뒤, 내 마음에 떠오른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 봐요.

1. 최근 내가 품었던 질문 중 가장 엉뚱하지만 재미있었던 물음표는 무엇인가요?

2. 만약 세상의 모든 답을 알고 있는 마법의 거울이 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물어보고 싶나요?

3. 정답을 외우는 공부와 질문을 찾아가는 공부 중, 나를 더 설레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말이나 그림, 색칠도 좋아. 자유롭게 표현해 보.

선생님의 궁물 아침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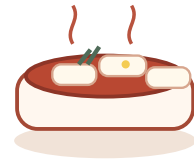
서로 다른 색깔이 모인 무지개 교실

우리 반을 가만히 둘러보면, 성격도, 좋아하는 음식도, 잘하는 운동도 다 제각각이지?

만약 교실의 모든 친구가 똑같이 생기고 똑같은 생각만 한다면 어떨까? 처음엔 편할지 몰라도 금세 심심하고 지루해질 거야.

빨강, 노랑, 파랑이 모여야 눈부신 무지개가 되듯, 우리는 서로 달라서 함께 어울릴 때 더 멋진 반이 되는 거란다. 나와 생각이 다른 친구를 만났을 때 '틀렸어!' 대신 '너는 그렇게 생각했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여 보자.

오늘 우리 반 친구에게서 발견한 멋진 매력은 무엇이니?



오늘의 궁물

나와 다른 성격이나 취향을 가진 친구의 멋진 장점을 찾아 적어 봐.

여기서 떠오른 생각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 돌보기 힌트 (책을 180도 돌려 보세요)

나와 다른 성격이나 취향을 가진 친구의 멋진 장점을 찾아 적어 봐.
여기서 떠오른 생각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말이나 그림, 색칠도 좋아. 자유롭게 표현해 보.

신문에서 만난 궁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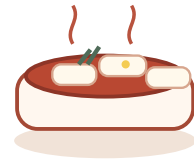
누구나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을 넓혀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시각장애인이나 독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점자 도서와 전자책, 오디오북을 적극 제작하고 있다.

손끝으로 글을 읽거나 소리로 들으며 누구나 지식과 이야기의 기쁨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장벽 없는 문화 공간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는 더 따뜻하고 포용적인 세상으로 나아간다.

[자료 출처: 문체부·국립장애인도서관]



오늘의 궁물

모두가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학교나 도서관의 모습은?

여기서 떠오른 생각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 돌보기 힌트 (책을 180도 돌려 보세요)

이런 경우 도서관에 책을 돌려주면 좋겠어. 도서관에 책을 돌려주면 좋겠어. 도서관에 책을 돌려주면 좋겠어.
 이 경우 도서관에 책을 돌려주면 좋겠어. 도서관에 책을 돌려주면 좋겠어. 도서관에 책을 돌려주면 좋겠어.
 이 경우 도서관에 책을 돌려주면 좋겠어. 도서관에 책을 돌려주면 좋겠어. 도서관에 책을 돌려주면 좋겠어.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말이나 그림, 색칠도 좋아. 자유롭게 표현해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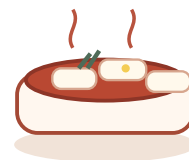
이야기 한 편

배려의 경사로

학교 현관 계단 옆에 완만한 경사로가 새로 생겼다. 휠체어를 탄 준호가 혼자서도 씩씩하게 올라올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경사로는 준호뿐 아니라 다리를 다친 민서, 급식 카트를 미는 조리사님, 무거운 짐을 나르는 택배 기사님도 편리하게 이용했다.

한 사람을 위해 만든 따뜻한 길이 알고 보니 모두를 편안하게 해 주는 모두의 길이었던 것이다.



오늘의 궁물

약자를 위한 배려가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니?

여기서 떠오른 생각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 돌보기 힌트 (책을 180도 돌려 보세요)

이웃을 위한 배려가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니?
여기서 떠오른 생각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말이나 그림, 색칠도 좋아. 자유롭게 표현해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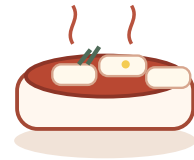
마음 가는 대로

공정한 규칙이란 무엇일까?

키가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같은 높이의 담장 너머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모두에게 똑같은 높이의 상자를 주는 것이 공정할까, 아니면 키 작은 사람에게 더 높은 상자를 주는 것이 공정할까?

진정한 공평과 정의는 각자의 상황과 필요를 따뜻한 눈으로 헤아리는 데서 시작해.



오늘의 공물

우리 반에서 모든 친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돕는 규칙을 제안한다면?

여기서 떠오른 생각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 돌보기 힌트 (책을 180도 돌려 보세요)

이웃을 돕는 것은 공평한 규칙을 세우는 것과 같다. 모두가 함께
이웃을 돕는 것은 공평한 규칙을 세우는 것과 같다. 모두가 함께
이웃을 돕는 것은 공평한 규칙을 세우는 것과 같다. 모두가 함께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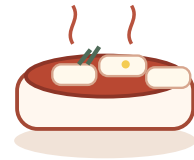
말이나 그림, 색칠도 좋아. 자유롭게 표현해 보.

동시에서 만난 궁물 형제별

아득한 밤하늘에
별 두 개가
나란히 나란히
빛납니다

하나의 형의 별
하나의 아우의 별

멀리멀리 떨어져도
서로를 보며
반짝반짝 반짝반짝



길을 비춥니다.
오늘의 공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응원하고 힘이 되어 주는 사람이 있다. 「형제별」
여기서 떠오른 생각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 돌보기 힌트 (책을 180도 돌려 보세요)

[illegible]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말이나 그림, 색칠도 좋아. 자유롭게 표현해 보.

토요일의 궁물 · 관찰과 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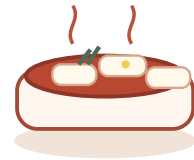
나를 지탱해 준 낡은 운동화 밑창

토요일 아침, 신발장에 놓인 내 운동화를 꺼내 밑창을 뒤집어 보았어.

왼쪽 뒤꿈치가 오른쪽보다 조금 더 닳아 있고, 흙과 모래가 울퉁불퉁한 홈 사이에 콕콕 박혀 있었지.

이 운동화는 지난 일주일 동안 나와 함께 몇 걸음이나 걸었을까? 달리기를 할 때, 넘어졌을 때, 빗길을 건널 때도 내 발을 묵묵히 지켜 주었어.

몸에서 가장 낮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온 힘으로 지탱해 주는 것들의 소중함을 느껴 보았니?



토요일의 궁물 · 관찰에서 발상으로

매일 나를 돕고 지탱해 주지만 미처 고마움을 몰랐던 물건을 찾아 관찰해 봐.
여기서 떠오른 생각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 돌보기 힌트 (책을 180도 돌려 보세요)

이제까지의 궁물 · 관찰을 180도 돌려 보세요.
 [1] 왼쪽 뒤꿈치: 오른쪽보다 조금 더 닳아 있고, 흙과 모래가 울퉁불퉁한 홈 사이에 콕콕 박혀 있었지.
 [2] 이 운동화는 지난 일주일 동안 나와 함께 몇 걸음이나 걸었을까? 달리기를 할 때, 넘어졌을 때, 빗길을 건널 때도 내 발을 묵묵히 지켜 주었어.
 [3] 몸에서 가장 낮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온 힘으로 지탱해 주는 것들의 소중함을 느껴 보았니?

오른쪽 필사 문장에서 이어져도, 오늘 하루 이야기부터 시작해도 좋아.

말이나 그림, 색칠도 좋아. 자유롭게 표현해 보.

일요일의 궁물 필사노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진짜 용기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 두려움을 씩씩하게
이겨내는 것이다.

— 넬슨 만델라

우리는 매 순간 두려움을 마주해요. 두려움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가슴이 쿵쥔거리지만 떨리는 손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용기입니다.

바른 글씨 정서 원고지 · 토박토박 바르게 쓰기

총 64칸 (16자 × 4줄)

문장 속 궁물 · 마음에 묻다



이 문장을 마음에 품고, 나에게 건네고 싶은 질문이나 생각을 써 봐.

여기서 떠오른 생각은 왼쪽 질문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 돌보기 힌트 (책을 180도 돌려 보세요)

이제부터는 책을 180도 돌려 보세요. 책을 180도 돌려 [이제부터는 책을 180도 돌려] [이제부터는 책을 180도 돌려] [이제부터는 책을 180도 돌려] [이제부터는 책을 180도 돌려] [이제부터는 책을 180도 돌려] [이제부터는 책을 180도 돌려] [이제부터는 책을 180도 돌려] [이제부터는 책을 180도 돌려] [이제부터는 책을 180도 돌려] [이제부터는 책을 180도 돌려] [이제부터는 책을 180도 돌려] [이제부터는 책을 180도 돌려] [이제부터는 책을 180도 돌려] [이제부터는 책을 180도 돌려] [이제부터는 책을 180도 돌려] [이제부터는 책을 180도 돌려]

궁물 생각 충전소 · 7주차 특집

두려움이라는 친구와 손잡는 법

가슴이 쿵쾅거릴 때 나를 지켜주는 내 안의 작은 파수꾼

전교생 앞이나 반 아이들 앞에서 발표를 하려고 교탁 앞에 서면, 갑자기 목소리가 기어들어가고 다리가 후들거리며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던 경험이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흔히 '난 왜 이렇게 겁쟁이일까?', '왜 용기가 없을까?' 하고 스스로를 탓하곤 합니다.

하지만 가슴이 뛰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여러분이 결코 나약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수만 년 전부터 인간의 뇌 속에 프로그래밍된 '나를 지키는 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훌륭한 증거랍니다.

두려움은 나를 괴롭히려는 적이 아니라, 위험한 상황에서 나를 보호하고 집중력을 극대화해 주려는 고마운 '마음의 파수꾼'이에요.



생각의 날개를 펴고 오른쪽 이야기로 이어가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내 마음에 비추어 보세요.

생각 이어가기 & 마음 비추기

용기 있는 영웅들은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일까요? 천만에요. 세상의 모든 탐험가와 영웅들도 똑같이 식은땀을 흘리고 가슴이 터질 듯한 두려움을 느꼈답니다.

다만 그들은 두려움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두려움의 손을 꼭 쥐며 '괜찮아, 조금 떨리지만 그래도 해보는 거야' 하고 한 걸음을 내딛었을 뿐이에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심호흡을 깊게 세 번 해 보세요. '내 파수꾼이 나를 응원하느라 심장을 열심히 뛰게 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며 씨익 웃어주는 거예요.

작은 떨림을 안고 내딛는 여러분의 그 한 걸음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든든한 날개가 되어 줄 것입니다.

내 마음에 띄우는 질문 풍선

이야기를 읽고 난 뒤, 내 마음에 떠오른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 봐요.

1. 최근 내 마음의 파수꾼(두려움)이 가장 시끄럽게 경보를 울렸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2. 가슴이 쿵쥔거릴 때 나를 편안하게 안심시켜 주는 나만의 마법 주문이나 행동은 무엇인가요?
3. 떨리는 마음을 이겨내고 도전했을 때 맛보았던 뿌듯한 기쁨을 떠올려 적어 보세요.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말이나 그림, 색칠도 좋아. 자유롭게 표현해 보.

선생님의 궁물 아침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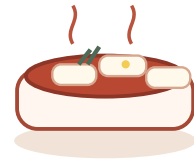
벌써 8주째 월요일이구나!

어느덧 이 공책을 함께 펼친 지 여덟 번째 월요일 아침이 되었네!

1주차 첫날, '질문일기가 뭐예요?' 하며 낯설어하던 너희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이제는 매일 스스로 질문을 찾고 마음을 적어 내려가는 멋진 어린이가 되었구나.

그동안 쓴 일기장 앞쪽을 스르륵 넘겨보렴. 땀땀 쓴 글씨 속에 너의 하루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담겨 있는지! 공책이 두툼해진 만큼 네 생각의 키도 훌쩍 자랐단다.

마지막 8주차도 힘차게 걸어가 보자. 끝까지 함께해 준 너 자신이 정말 자랑스럽지 않니?



오늘의 공물

질문일기장을 처음 썼던 날의 나와 지금의 나를 돌아보며 한마디를 적어 보.
여기서 떠오른 생각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 돌보기 힌트 (책을 180도 돌려 보세요)

【배경 및 내용】 내 생 각 특 록 8 주 동안 꾸준히 질문을 써 온 나 자신에게 하고 싶은 칭찬 한마디는? 【보통 및 결론】 물론 칭찬 지 난 8 주 동안 질문을 적으며 내 마음에 생 기 가 장 큰 변화는 무엇 일 까? 【주요 함의】 물론 칭찬 1 주 차 첫 일 기 를 다 시 살펴 보 아 였 는 데 그 때 의 나 와 지금 의 나 는 어 떻 게 나 를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말이나 그림, 색칠도 좋아. 자유롭게 표현해 보.

신문에서 만난 궁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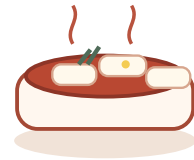
우리의 소중한 기록, 세계유산으로 이어져요

국가유산청은 조상들이 남긴 조선왕조실록, 훈민정음 등 찬란한 유산들을 보존하고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하기 위한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하루하루의 정직한 기록이 수백 년의 세월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 커다란 지혜와 용기를 전해 주는 것처럼 기록은 시간의 다리 역할을 한다.

우리가 이 작은 공책에 남긴 일기와 질문들도 미래의 나에게 가장 소중한 역사책이 될 것이다.

[자료 출처: 국가유산청]



오늘의 공물

100년 뒤 미래의 아이들에게 오늘날 우리의 초등학교 생활을 전한다면?

여기서 떠오른 생각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 돌보기 힌트 (책을 180도 돌려 보세요)

[배경음 : 내 새 친구들] 독후감 쓰기 대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쓴 독후감을 읽고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책을 골라 소개할 것입니다.

[모듬웃음 : 문과문자] 하루하루의 일상을 꾸준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조한웃음 : 북북 찾기] 조사하기는 딱딱한 일이지만 재미있는 것들이 있을거야?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말이나 그림, 색칠도 좋아. 자유롭게 표현해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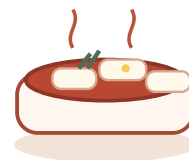
이야기 한 편

공책의 두께만큼 자란 나

처음에는 뽀뽀하고 가벼웠던 공책이 이제는 제법 두툼해졌다. 손때가 묻고 모서리가 조금 닳은 공책을 손으로 쓸어보았다.

화가 나서 꺾꺾 눌러쓴 날, 슬퍼서 눈물 자국이 남은 날, 기뻐서 느낌표를 잔뜩 그린 날.

이 얇은 종이들 사이에 나의 진짜 하루들이 커커이 쌓여 있었다. 공책이 두꺼워진 만큼 내 마음도 단단해졌다는 걸 느꼈다.



오늘의 궁물

손때 묻은 공책을 보며 가장 자랑스럽거나 뭉클했던 순간은 언제였니?

여기서 떠오른 생각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 돌보기 힌트 (책을 180도 돌려 보세요)

이제까지의 공책이 두꺼워진 만큼 나의 진짜 하루들이 커커이 쌓여 있었다. 공책이 두꺼워진 만큼 내 마음도 단단해졌다는 걸 느꼈다.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말이나 그림, 색칠도 좋아. 자유롭게 표현해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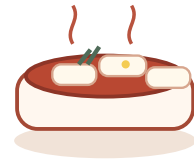
마음 가는 대로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나의 질문 사전

지금까지 8주 동안 내가 만들어낸 질문들을 모으면 멋진 '질문 사전'이 될 거야.

정답을 바로 찾지 못했더라도 괜찮아. 좋은 질문은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동안 서서히 아름다운 답을 꽃피우니까.

내가 만든 최고의 질문들로 가득 찬 나만의 질문 사전에 멋진 표지를 붙여 준다면 뭐라고 적을까?



오늘의 공물

8주간 만든 질문 중 가장 빛나는 나만의 질문 하나를 사전 표제어로 뽑는다면?

여기서 떠오른 생각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 돌보기 힌트 (책을 180도 돌려 보세요)

【배운 것】 내 생각과 똑같 [알고 싶은 것] 마추친 수 많은 공문들한테 건네는 나의 한마디는?
 【보통 말】 문과 공문 진짜! 전문성을 뽐내고 싶어서 어떤 글을 쓸까?
 【숙한 말】 목록·목록 찾기 [8주 동안 가장 많이 읽었던 공문의 종류는 무엇이었을까?]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말이나 그림, 색칠도 좋아. 자유롭게 표현해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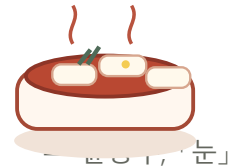
동시에서 만난 궁물

눈

지난밤에
눈이 소복이 왔네

지붕이랑
길이랑 발이랑
추워한다고
덮어주는 이불인가 봐

그러기에
추운 겨울에만 나리지



오늘의 궁물

지난 8주 동안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지켜 준 기억은 무엇일까?

여기서 떠오른 생각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 돌보기 힌트 (책을 180도 돌려 보세요)

지붕이랑 길이랑 발이랑 추워한다고 덮어주는 이불인가 봐
그러기에 추운 겨울에만 나리지
지붕이랑 길이랑 발이랑 추워한다고 덮어주는 이불인가 봐
그러기에 추운 겨울에만 나리지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말이나 그림, 색칠도 좋아. 자유롭게 표현해 보.

토요일의 궁물 · 관찰과 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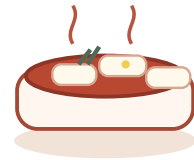
해 질 녘 창밖 노을과 불 켜지는 이웃집 창문들

토요일 저녁 무렵,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는 시간에 창가에 서서 아파트 단지와 골목길을 바라보았어.

어스름이 내리자 건너편 아파트 창문에 주황색, 노란색 따뜻한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지.

저 창문 너머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저녁밥을 짓는 냄새, 웃음소리, 텔레비전 소리... 나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무수한 이웃들이 저마다의 온기를 밝히고 있어.

우리는 모두 각자의 섬에 사는 것 같지만, 같은 하늘 아래 불빛을 나누며 연결되어 있단다.



토요일의 궁물 · 관찰에서 발상으로

어스름한 저녁,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저 불빛 아래 살아가는 이웃들의 온기를 적어 봐. 여기서 떠오른 생각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 돌보기 힌트 (책을 180도 돌려 보세요)

어스름한 저녁,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저 불빛 아래 살아가는 이웃들의 온기를 적어 봐. 여기서 떠오른 생각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오른쪽 필사 문장에서 이어져도, 오늘 하루 이야기부터 시작해도 좋아.

말이나 그림, 색칠도 좋아. 자유롭게 표현해 보.

일요일의 궁물 필사노트

우리는 모두 별에서 온 아이들

우리는 모두 별에서 태어났다.
 지구는 우주의 작은 점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온 우주를
 품을 만큼 넓고 깊다.

— 칼 세이건, 『코스모스』 중에서

우리를 이루는 원소들은 수십억 년 전 별들이 만들어낸 먼지예요. 우리는 모두 별의 자손이자 우주의 귀한 선물입니다. 8주간의 여행을 마친 나 자신을 소중히 안아주세요.

바른 글씨 정서 원고지 · 토박토박 바르게 쓰기

총 64칸 (16자 × 4줄)

문장 속 궁물 · 마음에 묻다

이 문장을 마음에 품고, 나에게 건네고 싶은 질문이나 생각을 써 봐.

여기서 떠오른 생각은 왼쪽 질문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 돌보기 힌트 (책을 180도 돌려 보세요)

이제부터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글을 써볼까? 글씨도 예쁘게 써볼까?
 글씨도 예쁘게 써볼까? 글씨도 예쁘게 써볼까? 글씨도 예쁘게 써볼까?
 글씨도 예쁘게 써볼까? 글씨도 예쁘게 써볼까? 글씨도 예쁘게 써볼까?

궁물 생각 충전소 · 8주차 특집

내가 던진 작은 돌멩이의 동심원

매일의 작은 질문과 다정한 행동이 세상에 퍼뜨리는 나비효과

잔잔한 호숫가에 작은 조약돌 하나를 퐁당 던져본 적이 있나요? 조약돌이 물에 닿는 순간 '퐁' 소리와 함께 동그란 물결(동심원)이 생겨나지요.

처음에는 손바닥만 하던 작은 물결이 점점 커지더니, 어느새 호수 전체로 퍼져나가 저 멀리 반대편 기슭의 갈대잎까지 살랑살랑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매일 던지는 생각과 질문, 그리고 무심코 건네는 다정한 말 한마디도 호수에 던진 조약돌과 똑같아요.

아침에 친구에게 건넨 밝은 '안녕!', 길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워 휴지통에 넣은 손길, '저 친구는 오늘 왜 울적할까?' 하고 품었던 따뜻한 관심. 이 작은 행동들이 물결처럼 퍼져 누군가의 하루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답니다.



생각의 날개를 펴고 오른쪽 이야기로 이어가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내 마음에 비추어 보세요.

생각 이어가기 & 마음 비추기

8주 동안 여러분은 56번의 아침과 저녁을 지나며 수백 개의 소중한 질문 조약돌을 마음의 호수에 던져 왔어요.

그 질문들은 여러분의 생각을 깊고 맑게 만들어 주었을 뿐 아니라, 교실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가족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었을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힘은 커다란 메가폰을 든 위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정직하게 질문하고, 작은 것 하나에도 다정함을 잃지 않는 바로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공책의 마지막 장을 덮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 호수에는 어떤 아름다운 물결이 일렁이고 있나요? 여러분이 세상에 퍼뜨릴 눈부신 동심원을 기대합니다!

내 마음에 띄우는 질문 풍선

이야기를 읽고 난 뒤, 내 마음에 떠오른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 봐요.

1. 지난 8주 동안 내가 던진 질문과 행동 중 가장 아름다운 물결을 일으켰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2. 오늘 내가 주변의 친구나 가족에게 선물하고 싶은 '다정한 조약돌 한마디'는 무엇인가요?

3. 8주 질문 여행을 끝낸 나에게 가장 달라진 점 하나와 앞으로도 잊지 않고 싶은 생각은?

8주간의 공물 완주를 축하해요!

어느덧 8주, 원여섯 번의 아침과 저녁을 지나온 나에게 건네는 물음표입니다.

1. 8주 동안 쓴 질문 중에서 나를 가장 깊이 생각하게 만든 질문은?

2. 매일 만났던 '오늘의 마음 단무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맛은?

3. 일요일마다 꺾꺾 눌러 쓴 필사 문장 중 평생 간직하고 싶은 한 줄은?

한 뼨 더 자라난 나를 만나며

시작할 때의 나와 지금 8주차를 마친 나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4. 1주차 첫날의 나와 지금 8주차를 마친 나는 어떤 점이 가장 달라졌을까?

5. 《궁물 생각 충전소》 이야기 8편 중 내 마음에 가장 깊은 울림을 준 것은?

6. 공책을 덮은 뒤에도 계속 마음에 품고 가고 싶은 나만의 보물 질문은?

내가 뽑은 최고의 궁물 질문 BEST 5

지난 8주 동안 내가 직접 만들었던 가장 반짝이는 질문 5개를 뽑아 보세요.

BEST 1

BEST 2

BEST 3

BEST 4

BEST 5

궁 물 완 주 증 서

Certificate of Completion

제 202__ - __ 호

이 름 : _____

위 어린이는 8주(총 56일) 동안 매일 스스로 궁금한 것을 묻고
자신의 마음과 하루를 소중히 기록하며
좋은 문장을 마음에 새기는 《궁물떡볶이》 여행을
훌륭하게 완주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__년 __월 __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강 미 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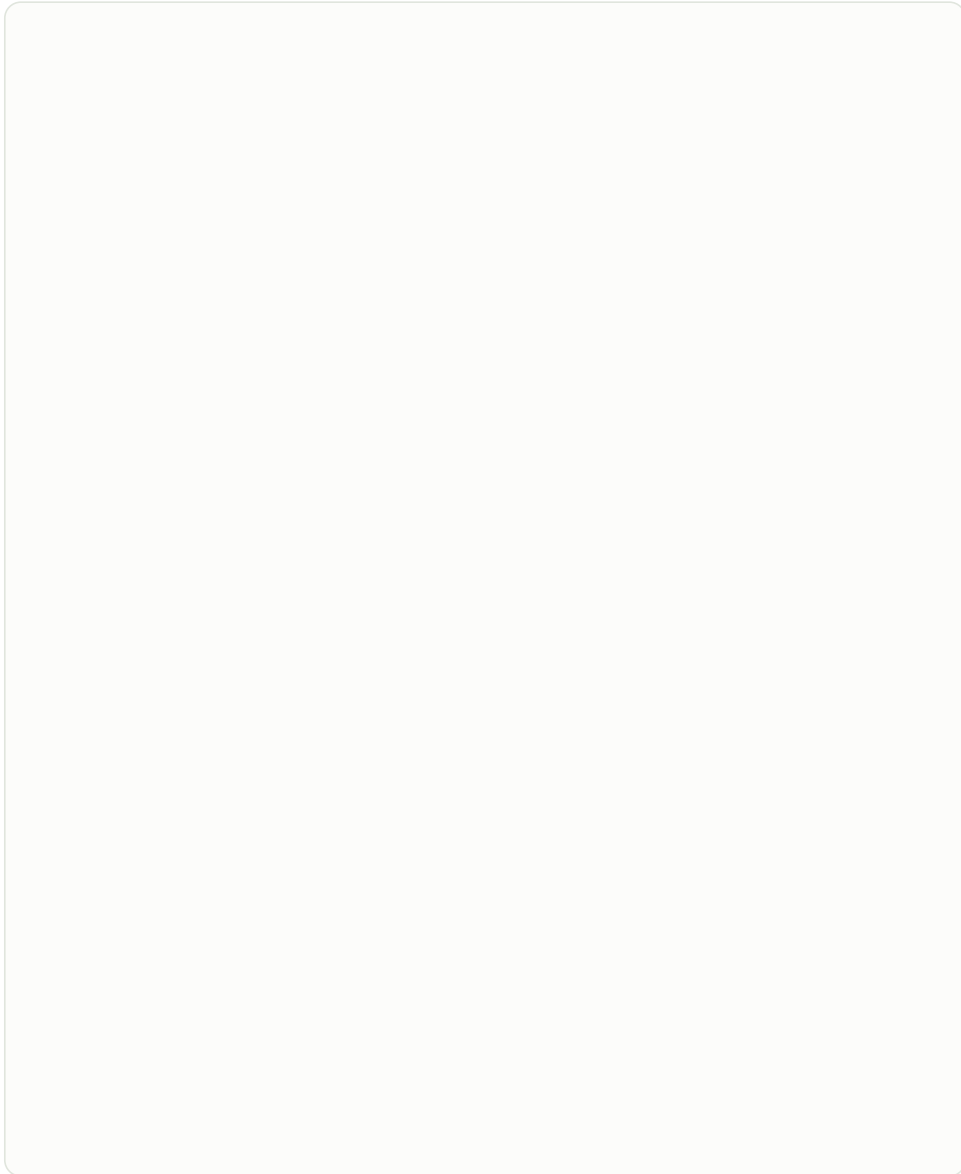
선생님 / 보호자 칭찬 한마디: _____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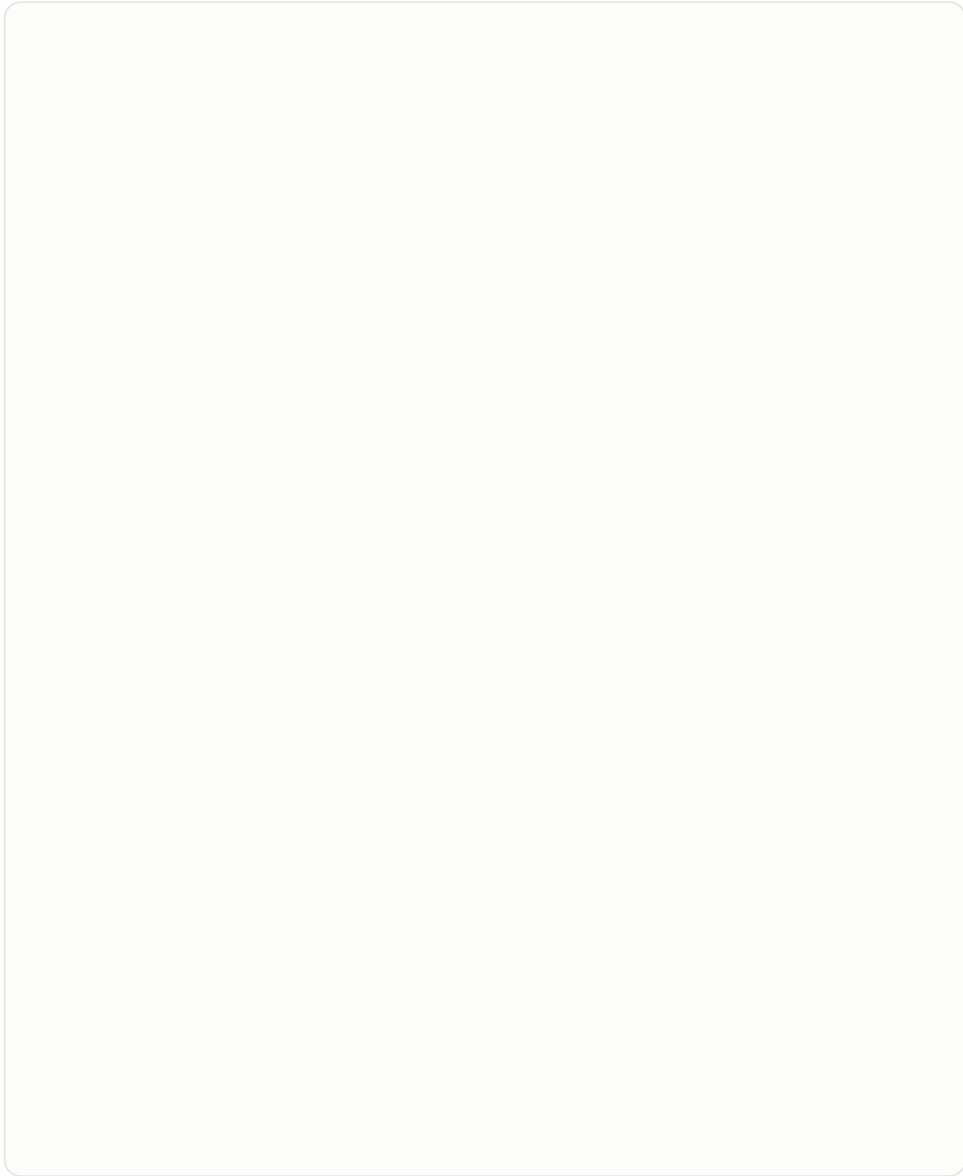
나의 생각 낙서장

형식도 규칙도 없어요. 마인드맵, 만화, 낙서,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쳐 보세요.



나의 비밀 질문 보관소

아직 답을 찾지 못했지만 꼭 품고 살아가고 싶은 질문들을 모아두는 곳입니다.



선생님이 너희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

8주간의 멋진 질문 여행을 마친 세종 어린이들에게

안녕, 소중한 친구들!

8주 전, 하얀 백지 앞에서 연필을 쥐고 망설이던 너희의 첫날이 생각납니다.

‘무슨 질문을 써야 하지?’, ‘내 글씨가 삐뚤빼뚤하면 어찌지?’ 걱정하던 너희가

어느새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마음의 날씨를 살피고,
토요일이면 주변의 사물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며,
일요일이면 아름다운 시와 글을 꼭꼭 눌러 쓰는 멋진 작가가 되었더군요.

질문하는 사람은 결코 제자리에 멈춰 서 있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에도 ‘왜 그럴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묻는 아이는
마치 땅속 깊은 곳으로 거대한 뿌리를 내리는 대나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일매일 자라나고 있으니깐요.

이 공책의 마지막 장을 덮더라도,
너희의 마음속에 피어난 호기심의 물음표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너희가 던진 질문들이 모여 더 다정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8주 동안 끝까지 걸어와 준 너희들의 빛나는 앞날을 온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참 잘했어요!

수록 자료 및 기사 출처 상세 안내 (별첨)

공공누리 제1유형 공공저작물 및 문학 작품 출처 목록 (8주 전수)

화요일 [신문에서 만난 궁물] 기사 원문 출처 (1~8주)

- 1주: 교육부 (2025.12.30.)
「2030년까지 마을건강 전문상담인력 확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 2주: 행정안전부 (2025.11.15.)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및 무장애 놀이터 확산」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mois.go.kr)
- 3주: 환경부 (2025.10.20.)
「고품질 재활용 체계 구축 및 순환이용 활성화」
환경부 보도자료 (me.go.kr)
- 4주: 과기정통부 (2025.09.10.)
「우주항공청 개청 및 차세대 심우주 탐사 로드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뉴스 (msit.go.kr)
- 5주: 산림청·환경부 (2026.02.15.)
「도시 생태축 복원 및 도시숲 네트워크 구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 6주: 과기정통부·천문연 (2026.03.20.)
「청소년 우주탐사 및 천문과학 교육 확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 7주: 문체부·국립장애인도서관 (2026.01.22.)
「독서 소외계층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 보급」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 8주: 국가유산청 (2026.02.28.)
「세계기록유산 보존 관리 및 미래 세대 전승」
국가유산청 보도자료 (khs.go.kr)

금요일 동시 및 일요일 필사노트 문학 출처 (1~8주)

- 1주: 정지용 「호수」 |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
- 2주: 권태웅 「감자꽃」 |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
- 3주: 정지용 「해바라기 씨」 | 윌리엄 블레이크 「순수의 전조」
- 4주: 정지용 「별뿔」 | 윤동주 「서시(序詩)」
※ 신문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초등학교생용으로 요약·재구성되었으며, 문학 인용 규정을 준수하였습니다.
- 5주: 윤동주 「반딧불」 | 헨리 데이비드 소로 「월든」
- 6주: 윤동주 「오줌싸개 지도」 |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 7주: 방정환 「형제별」 | 넬슨 만델라 명언
- 8주: 윤동주 「눈」 | 칼 세이건 『코스모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발행: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 강미애)

판형: 188×263mm 맞쪽 제본 정규판 (총 144쪽 / 16쪽 9대수 완결)

궁물떡볶이

궁금해? 물어봐!

매일의 물음표가 모여,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가 되었어.

8주간의 질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넓은 세상으로 이어져.



언제 어디서든 네 마음과 하루를 남겨 봐.

스스로 묻고 답을 찾아가는 아이는 매일 조금씩 자라납니다.

《궁물떡볶이》 초등 8주 56일 질문일기장 & 필사노트

- 기획·발행: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구성: 주 7일(월~일) 8주 완성형 + 8편의 특집 읽을거리(총 144쪽 정규판)
- 대상 학년: 초등학교 3~6학년 공통
- 규격 판형: 188.0 × 263.0 mm (사방 3mm 도련 포함, 재단 B5 182 × 257 mm)
- 수록 출처: 상세 신문 기사 및 문학 출처는 143쪽 별첨 참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